경주(慶州)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 신라가 건국된 기원전 57년부터 고려에 멸망된 935년까지 약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도시로 대릉원을 비롯한 고분, 불국사를 비롯한 많은 절터들이 남아 있는 문화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경주는 한반도 동남부에서 동해로 흘러드는 큰 강인 형산강과 태화강을 기반으로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던 국가이다.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1. 신라의 건국

사라리 유적, 삼한시대 고분 유적지

경주시 서면 사라리에서 발견된 고분유적이다. 1995년 이곳에 공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유물이 발견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청동기시대 주거지, 원삼국시대 목관묘, 삼국시대 적석목관묘 등 다양한 시기의 무덤들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무덤 중 130호분에서는 삼한시대를 대표하는 호랑이모양 청동허리띠고리를 비롯하여 청동검과 칼집, 청동거울 등이 출토되었다. 영천 어은동 출토유물과 함께 삼한시대 진한세력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유물들이다.
56호분에서는 5세기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말머리가리개와 이형투구, 철갑옷 등이 출토되었다.
<삼국사기>에는 고조선 유민들이 경주지역으로 이주하여 6촌을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주 사라리 유적>



<사라리 고분군에서 가장 많은 유물의 출토된 130호분의 형태>

사라리는 대구에서 영천을 통해 경주로 연결되는 주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조선에서 남하한 유민들이 낙동강을 거쳐 대구 경산과 영천를 거쳐 이곳에서 자리잡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무덤의 주인들은 신라 건국초기에는 이 지역의 지배계층이었으며, 4~5세기 신라를 건국한 박씨집단이 건천읍 일대에서 이주한 이후에도 지역의 주요세력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상사진으로 본 사라리 고분군이 있던 유적지>

1~2세기 삼한시대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껴묻거리로 한국형 동검, 호랑이모양 허리띠고리 등 삼한시대를 대표하는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허리띠고리는 사라리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삼한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비슷한 시기 중국 한나라에서도 많이 출토되고 이다.



<경주 사라리 무덤에서 출토된 청동검(1~2세기, 중앙박물관)>





<호랑이모양 띠고리, 1~2세기)><'8'자 모양 띠고리, 1~2세기>

1995년 경주 사라리 5호 덧널무덤에서 출토된 투구는 볼 가리개와 이마를 보호하는 쇠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머리 위쪽을 보호하는 복발이 없는 특이한 형태이다.





<투구(4세기, 경주박물관)><판갑옷(4세기, 경주박물관)>

나정,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 탄생설화가 있는 곳

경북 경주시 탑동에 있는 나정(蘿井, 사적)이다.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왕의 탄생설화가 있는 우물 유적이다. 2012년 경에 발굴, 조사 및 유적지 정비가 진행 중이었으며 지금도 최근에 빈터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선 순조대에 세워진 유허비가 남아 있으며 출토된 건물석재들도 볼 수 있다. 발굴조사 결과 팔각건물지, 우물지, 담장지, 부속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우물 유적으로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는 제사 등을 위한 공간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주 나정(사적)>

박혁거세(재위 기원전 57~ 기원후 4년)는 경주 일대에 있던 6부촌 중 남산 북쪽 고허촌 촌장이 나정에서 가져온 알에서 태어났다고 전한다. 13세 되던해 6부촌 촌장들이 그를 왕으로 옹립하고 국호를 서라벌이라고 하였다. 부인인 알영부인 또한 경주 오릉에 있는 알영정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의 무덤이 있는 경주 오릉(사적)은 경주 서남쪽 고허촌 부근에 자리잡고 있다. 나정에는 조선 순조 때(1803)에 세워진 유허비가 남아 있다. 경주 나정은 2002년부터 3년간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8각건물지, 우물지, 기와와, 토기, 철재류, 담장지 등이 확인되었다.





<유허비 및 석조유물>

이곳은 남산 북서쪽 자락 아래에 돌산고허촌이 있었던 지역으로 보인다. 주변에는 남간사지, 창림사지 절터가 있으며, 남쪽으로 경주 포석정과 경주 오릉을 비롯하여 경주 박씨와 관련된 왕릉들이 자리잡고 있다.



<경주 남산과 창림사지 절터>



<양산재에서 보이는 박혁거세 탄생설화가 있는 경주 나정(사적)>

양산재(楊山齋)는 신라를 건국한 경주 6부촌장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세워진 사당이다삼국유사에 따르면 6촌은 유리왕9년(32)에 6부로 개편되면서 이들 6촌에 성씨를 내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성씨를 사용한 시기는 그 이후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박혁거세 탄생설화가 있는 경주 나정(蘿井, 사적) 뒷편에 위치하고 있다. 70년대에 건립된 곳으로 유적지라기 보다는 신라의 건국을 설명해 주는 장소이자 여섯 성씨의 조상을 함께 모신 공간이다.



<6부 촌장을 모신 양산재 사당>

경주 6촌은 북천 북쪽 알천양산촌(경주 이씨), 남천 북쪽 돌산고허촌(경주 최씨), 월성 동쪽 취산진지촌(경주 정씨), 모량천 유역 무산대수촌(경주 손씨), 북천 북쪽 백률사 부근 금산가리촌(경주 배씨), 보문사 부근 명활산고야촌(경주 설씨)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성씨의 시조이기도 하다.

표암, 경주이씨 시조 탄생설화가 있는 곳

경북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표암 (**慶州瓢巖**)이다. 이곳은 신라를 건국한 6촌 중 알천 양산촌 촌장이자 경주이씨 시조인 이알평공이 하늘에서 내려온 곳이라 전해지는 곳이다. BC 69년 6촌장이 이곳에서 화백회의를 열고 신라를 건국하였다. 유적지에는 이알평 탄생설화가 있는 광림대 석혈(**石穴**)과 조선 순조 때(1806년)에 세운 유허비, 재실, 사당 등이 있다. 표암 아래 신라 4대 탈해왕릉이 있어 알천 양산촌 세력과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주 표암>

표암은 사당과 재실 뒷편 바위산 전체를 말하며 '박바위' 또는 '밝은바위'를 뜻한다. 윗쪽에 탄생설화가 있는 광림대 석혈이 있고 그 아래 순조 때 세운 유허비가 있다. 석혈은 바위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경주이씨 시조인 알평공이 태어나서 몸을 씻은 곳이라 한다.



<1806년에 세워진 유허비>, <탄생설화가 있는 광림대 석혈>

계림, 김알지 탄생설화가 있는 곳

경북 경주시 교동에 있는 계림(**桂林**, 사적)은 경주 김씨 시조 김알지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 궁성이었던 월성 아래에 있는 신성한 숲으로 원래는 시림(**始林**)으로 불렸는데 김알지가 태어난 후 계림으로 불렀다고 한다. 김알지의 **7**대손인 미추왕이 처음 왕위에 올랐으며 내물왕 이후 김씨의 후손이 왕위를 세습하게 되었다. 계림은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싸리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수목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경주 계림(사적)>

월성 북쪽 출입문을 나서면 서쪽편에 작은 숲을 볼 수 있다. 특별히 문화재로 분류할 수 있는 유적,유물이 발굴된 장소는 아니지만 신라 천년을 이끌어온 김알지 탄생 설화가 있는 숲이다. 계림은 오래된 고목들이 많고 종류도 다양해 독특한 숲을 이루고 있다. 계림 끝부분에는 경주김씨 세습 체제를 구축한 내물왕릉이 자리잡고 있다.





<계림 숲><계림에서 볼 수 있는 고목들>

계림에는 조선후기 순조 때(1803년) 김알지 탄생에 관한 기록이 새겨져 있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계림 끝에는 김알지 후손으로 왕위에 오른 내물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내물왕릉(사적)이다. 신라는 내물왕 이후 김씨와 왕위를 세습하게 되었다. 계림 바깥쪽으로는 신라의 왕과 귀족들의 무덤인 대릉원이 자리잡고 있다.




<비석이 있는 비각>, <내물왕릉(사적)>



<첨성대 부근에서 보이는 계림>

2. 신라의 수도

경주 월성, 신라 궁궐이 있었던 도성

경북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경주 월성(**月城**, 사적)이다. 삼국시대 신라 5대 파사왕이 110년에 성을 쌓고 도성을 옮긴 이래 935년 신라가 멸망할 때 까지 궁성 역할을 했던 곳이다. 남천 북쪽 초승달처럼 생긴 지형에 성을 쌓았다. 동,서,북쪽에는 흙과 돌로 성벽을 쌓았으며, 남천이 흐르는 남쪽은 자연지형을 활용했다. 북쪽과 동,서쪽 성벽 아래에는 방어시설로 해자를 만들었다. 성곽의 입지요건이나 축성방법 등에서 대구 달성, 서울 풍납토성, 몽촌토성과 함께 삼국시대 이전 삼한시대 성곽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주 월성(사적)>





<대릉원에서 본 경주 월성(동쪽)>, <월성 남쪽을 흐르는 남천과 남쪽 성벽>

경주 시가지의 남쪽을 흐르는 남천을 따라 쌓은 삼한시대 토성(**土城**)이다. 울산 방면에서 흘러온 남천이 월성에서 서쪽으로 꺾어져 흘러 형산강과 합류한다.



<경주 월성 일대)>

월성에는 많은 성문이 있었는데 현재는 동궁과 월지로 연결되는 동문터와 월정교와 연결되는 서문터가 확인되고 있다. 동문터 발굴조사 결과 앞면 1칸, 옆면 3칸의 성문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궁궐 출입문으로는 작은편이다.



<동궁과 월지로 연결되는 동문터>

성벽은 흙으로 쌓은 토성으로 삼국시대 초기에 신라와 백제 성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성벽은 너비 40m, 높이 10m 이상의 상당히 큰 규모이다. 성벽의 재료는 볏집, 점토, 건물벽체 등 다양하나 재료를 사용했으며 윗쪽에는 자연석을 견고히 쌓고 있다. 월성은 4세기 소지왕 때 크게 수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고구려 산성 축성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월성 동문 옆 성벽>, <월성 동쪽 성벽>



<성벽으로 옮겨 놓은 석빙고>

월성 북쪽에서 계림과 대릉원으로 출입하는 성문처럼 보이는 출입문을 볼 수 있는데 설명자료 등에는 성문터였다는 내용은 없다





<북쪽 성문 부근 성벽>, <월성 안쪽에서 본 성벽>





<계림으로 연결되는 북쪽 출입문>, <계림 뒷편 성벽과 해자>

성안에는 많은 건물터가 남아 있으며, 조선시대에 옮겨온 석빙고(보물)도 있다. 건물로는 월상루, 망덕루등의 누각과 왕이 정사를 보던 남당, 사신을 접견하던 조원전과 내성 등이 있었다.



<성문을 들어서면 보이는 월성 내부>





<월성 내부 건물터>

월성은 남쪽을 흐르는 남천이 해자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쪽, 북쪽,— 서쪽으로는 인공적으로 도랑을 파서 해자를 조성했다. 해자는 월성을 크게 수리한 소지왕 때(5세기 경)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국통일 이후 월성이 동궁과 첨성대 일대로 확장되면서 조경적인 역할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동문 남쪽, 복원이 완료된 석축해자>

월성해자는 1980년대 이후 여러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사람을 묻은 인골을 비롯하여 목간, 토기, 기와 등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조사결과 해자는 약 500년 동안 땅을 파서 만든 수혈해자에서 석축해자로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월성 주변에는 해자가 10개 이상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연못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동문 북쪽 성벽 아래 발굴과 복원이 진행중인 5호 해자>

북쪽 성벽 아래 4호 해자는 동서의 길이가 약 80 m, 남북 약 40 m에 달하는 장타원형 모양이었다. 가장 먼저 둥근 형태의 강돌들을 이용하여 석축 해자를 조성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그 안쪽으로 쌓은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정비가 완료된 4호 해자>



<2호 해자, 3호 해자, 정비되기 이전 모습>, <계림 뒷편 1호 해자>

<삼국사기)에 따르면 문무왕 때 궁 안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었으며, 동궁(東宮)을 처음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을 통일한 이후 궁궐이 월성 밖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월성 해자 북쪽에서 여러 건물터가 확인되었다. 첨성대는 궁궐에서 창경궁 관천대와 비슷한 역할과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1호 해자와 계림 사이 계림 남편 건물터>

월성 북쪽편에는 계림 남쪽과 북쪽, 첨성대 남쪽에 건물터가 확인되었다. 건물의 용도는 알 수 없지만 내물왕릉과 계림 부근, 첨성대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제의시설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계림 북쪽편 건물터>, <첨성대 남쪽편 건물터>

첨성대(국보)는 현존하는 천문대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석조건축물 중에서도 그 원형을 잘 보존하고 는 문화재이다. 신라 선덕여왕(재위 632~647년) 때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높이 9.4 m로 남쪽에 정사각형 출입문을 두었고, 사다리를 타고 정상부에 올라 천문을 관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 첨성대(국보)>

상층부 외 기단을 제외한 원통형 몸통은 27단으로 361개의 돌로 쌓았는데, 1년을 의미한다고 하나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며, 기록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남쪽으로 난 창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막돌로 채워져 있고 위쪽은 비어 있다. 내부에도 19~20단, 25~26단에 길다란 석재를 연결하여 정(井)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바깥으로 튀어나온 돌이 보인다. 원통형 몸체 외부는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으나 내부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정상부에는 반원형 판석이 막혀 있고, 나머지는 판자를 올려놓아 사다리를 통해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부에는 간의(簡儀)와 같은 천문관측기구를 올려놓고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확인된 바는 아니다.

경주 동궁과 월지, 임해전지와 신라 별궁터

경북 경주시 인왕동 일대에 있는 신라 왕궁 별궁터이다. 신라 태자가 머물던 거처를 중심으로 국가적인 행사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를 연회를 베풀던 곳으로 동궁 이상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는 문무왕 때(674) 큰 연못을 파고 꽃과 나무를 심어 정원을 조성다는 기록과 경순왕이 왕건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시대 <동국여지승람>에는 “안압지의 서에는 임해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발굴조사 결과 연못 서쪽에는 크고 작은 건물터 26곳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 연못 서쪽 건물터 중 3곳과 연못을 복원하였다. 당나라 장안의 대명궁 후원 태액지가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다. 경주와 신라를 대표하는 장면 중 하나로 손꼽힌다.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일대>

안압지 서쪽에는 발굴, 조사 결과 회랑지를 비롯하여 26곳의 건물터가 확인되었다. 건물 배치는 출입문, 별궁 정전처럼 보이는 주건물과 편전처럼 보이는 뒷편 건물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마당 동쪽 안압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누각 용도의 건물들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들을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동쪽 누각을 제외한 건물 배치는 불국사 대웅전 영역이나 조선시대 궁궐 정전 영역과 비슷하다. 확인된 건물 중 하나가 <삼국사기> 등에 기록된 임해전(臨海殿)인 것으로 추정된다.



<안압지 동쪽 발굴 건물터>





<발굴 건물터를 기준으로 재현한 모형>

안압지 연못 남쪽에도 비교적 큰 규모 건물터가 있다. 건물 배치나 형태 등으로 볼 때 실무적인 용도의 부속건물인 듯 하다. 앞쪽 가운데 있는 건물터는 임해전지 영역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인 것으로 보인다. 궁궐 정전처럼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출입문 앞 동쪽 건물터>, <출입문과 회랑 건물터>

출입문을 들어서면 정전처럼 보이는 주건물터를 중심으로 회랑으로 둘러싸인 마당이 있으며 안압지가 있는 동쪽에 누각형태의 제1 건물터가 있다. 정전 건물 뒷편으로는 편전이나 사찰 강당처럼 생활공간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동궁 영역 중심 건물로 보이는 건물터>

주건물이 있는 영역 동쪽 제 1 건물터에는 복원된 건물이 있다. 발굴, 조사 결과와 안압지 출토 유물 등을 고려 하여 건물을 복원하였다. 건물은 앞면 3칸, 옆면 2칸의 단층 누각 건물이다. 복원된 건물 규모로 볼 때 소규모 연회를 가졌던 공간으로 보인다.



<복원된 제 1건물>





<안압지에서 본 모습> <야경>

주건물 뒷편으로는 약간 긴 형태의 건물터가 남아 있다. 경복궁 건물 배치를 고려하면 정전 뒷편 편전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보인다. 주건물이 대규모 공식행사를 하는 공간이라면 뒷편은 회의 등 일상적인 업무나 생활을 하는 공간인 것으로 보인다. 사찰 가람배치에서는 강당이 자리잡고 있다. 건물을 따라서 빗물이 흐르도록 만든 배수로로 추정되는 석조 유구를 볼 수 있다.



<뒷편 건물터>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동쪽편 회랑 건물터><석조 유구>

주건물이 있는 영역 뒷편 모퉁이에는 복원된 제 3건물을 볼 수 있다. 안압지 풍경을 감상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 앞면 5칸, 옆면 4칸 규모의 상당히 큰 누각건물이다. 경복궁에서 국가적인 연회가 열렸던 경회루와 같은 기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는 임해전(臨海殿)이 8차례 등장하는데 대부눈 큰 연회를 베풀었다는 내용이다. 이 건물이 임해전으로 보이는데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제 3건물>

안압지 서쪽은 석축을 높게 쌓았는데 석축에는 5개의 돌출된 건물지가 있다. 다양한 규모의 누각 건물들이 있어 다양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



<다양한 규모의 누각 건물들이 있는 안압지 서쪽 석축>





<제 1건물과 제 3건물 사이의 1칸 규모의 건물터><제 3건물과 제 5건물 사이의 석축과 건물터>

뒷편에 있는 제5건물은 앞면 3칸의 단층 목조건물이다. 뒷마당에 약간 떨어져 있는 누각 건물로 안압지 호수와 동궁 누각 건물들이 만드는 경치를 감상하기 좋은 곳이다.





<제 5건물지><뒷편에서 본 발굴 건물터>

신라 궁궐 후원 연못인 월지(**月池**)이다. 안압지(**雁鴨池**)로 잘 알려진 이 연못은 동궁 영역에 있지만 국가적인 연회를 베푸는 경복궁 경회루 연못과 같은 기능과 위상을 갖는 곳이다. <삼국사기>에 문무왕 때(674년) 궁궐 안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짐승과 새를 길렀다는 기록이 있다. 연못의 규모는 동서 200m, 남북 180m 정도이다. 궁궐 전각이 있는 서쪽과 남쪽은 석축을 높게 쌓아 직선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반해 북쪽과 동쪽은 들쭉날쭉한 곡선으로 되어 있다. 연못에는 발해만 동쪽에 있다는 삼신도를 본떠서 만든 크고 작은 3개의 섬을 배치하고 북쪽과 동쪽에 무산12봉을 상징하는 언덕을 조성해 놓고 있다.



<안압지로 불렸던 경주 월지(사적)>

조선시대 궁궐 연못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天圓地方**)'는 우주관을 반영하여 직사각형 연못에 섬을 배치한데 비해 도교 신선사상이 많이 반영되어 신선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당나라 장안의 대명궁 후원 연못인 태액지(**太液池**)와 비슷한 분위기를 주고 있다.



<첫번째 누각 건물에서 보이는 섬>

안압지는 서쪽과 남쪽은 직선이지만 변화를 주었고 동쪽과 북쪽은 들쑥날쑥한 곡선으로 석축을 쌓아 한번에 연못 전체 경치를 볼 수 없다. 북쪽과 동쪽에는 신선이 사는 무산12봉을 상징하는 언덕을 조성해 놓고 있다. 그 중 큰 연회가 열렸던 제3건물터 누각 건물과 마주보고 있는 동쪽 호숫가를 화려하면서 신비롭게 조성해 놓고 있다.





<2번째 섬과 주변 숲><1번째 섬과 2번째 섬>

연못 북서쪽에는 작은 규모의 연회을 열 수 있는 정자 건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북쪽 언덕은 자연스러운 풍경을 만들고 있다.





<연못 배수시설이 있던 북동쪽 모서리로 들어가는 물길> <안압지 북쪽 석축과 봉우리들>

배는 연못 동쪽에서 뒤집힌 채 발견되었다. 안압지에서는 소.말.돼지.개.노루.산양.등의 뼈가 많이 출토되었다. 이것은 “궁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는 <삼국사기> 내용이 사실임을 보여준다.





<안압지 출토 통나무 배><산양뼈>

북동쪽 끝에는 물을 빼는 배수 시설이 당시의 나무물마개가 꽂힌 채로 발견되었다. 장석에 4개의 구멍을 뚫어 물을 빼는 배수 시설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에 사용했던 나무물마개이다.





<배수시설이 발견된 북동쪽 모서리><나무물마개>

연못 동남쪽 모서리에는 연못에 물을 대는 시설인 두개의 수조가 있는데, 수위 조절과 함께 물의 낙차를 이용, 산소를 연못에 공급함으로써 수질의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연못에 물을 대는 시설인 수조 유구>





<외부에서 안압지을 들어오는 물길><수조에서 연못으로 흐르는 물길>

1970년 발굴조사 결과, 기와를 비롯하여 건축부재와 장식물, 금동여래삼존상을 비롯한 금동불상,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릇을 비롯한 생활용품, 당시 문자생활을 보여주는 목간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안압지 출토 금동판 불상(보물)><금동여래입상>

주령구(**酒令具**)는 연회장에서 흥을 돋우기 위한 놀이도구의 하나로 육각형이 8면, 정사각형이 6면인 14면체이다. 각면에는 주령구를 굴린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글이 새겨져 있다.





<'동궁아일(**東宮衙鎰**)'명 자물쇠><목제놀이기구, 주령구(복제품)>

경주 성동동 전랑지

경북 경주시 성동동 일대에 남아 있는 넓은 건물터 유적인 성동동 전랑지(**殿廊址**, 사적 88호)이다. 일제강점기 경주 북천 제방공사 중 흙으로 쌓은 토단이 발견되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당시 약 2,000평 정도가 발굴되었는데 전당터 6곳, 장랑터 6곳, 문터 2곳, 담장터, 우물터, 배수구 등이 확인되었다. 기와, 납석으로 만든 그릇 등이 출토되었으나 중요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건물터의 성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반월성 궁성 정문에서 시작되는 남북 대로(**大路**)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위상의 건물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관청건물이나 귀족의 저택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주 성동동 전랑지(사적)>





<유적지에 남아 있는 큰 건물 초석> <전랑지 동쪽편 건물터>

포석정지, 신라인이 유상곡수연을 하던 곳

경북 경주시 배동에 있는 포석정지(**鮑石亭址**, 사적)이다. 중국 동진시대 명필 왕희지가 즐겼던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을 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이다. 유상곡수(**流觴曲水**)는 정원에서 술잔을 띄우고 자기 앞으로 떠내려 올 때까지 시를 읊던 연회로, 동양의 선비나 귀족들이 즐겼다. 유상곡수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알려진 것은 4세기 경에 쓰인 왕희지의 난정서로, 문인들을 모아 굽이진 물줄기에 줄서 앉아 시를 지으며 즐겼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귀족사회에 유행했던 유상곡수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경주 남산 서쪽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경주 포석정지(사적)>

화강석으로 만든 수로는 길이 약 22 m이며, 높낮이 차는 5.9 cm이다. 남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토하는 돌거북이 있었다고 하며, 그 아래 있던 물을 받는 원형석조가 남아 있다. 수로는 전체적으로 곡선이 강조된 타원형이며 수로의 폭은 30cm, 깊이는 20cm 정도이다.





<포석지에 남아 있는 수로>

용강동 원지 유적

경주 북천 북쪽 황성동, 용강동 일대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정원 유적이다. 발굴,조사 결과 연못터, 호악석축렬, 인공섬 2곳, 건물터 2곳, 다리시설, 도로배수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연못은 물이 개울처럼 흐르는 곡수지(曲水池)로 통일신라 정원 연못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출토 유물로는 연화문 수막새, 귀면와, 마루기와 등이 있다. 통일신라 전성기인 8세기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궁궐에 속한 정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주 용강동 원지 유적(사적)>

유적지에는 이곳이 연못이었을 보여주기 위해 발굴, 조사결과 확인된 연못의 형태에 따라 석축에 사용된 돌을 놓고 있다. 개울을 따라 물이 흐르고 가운데 섬을 두고 있다. 경주 동궁 월지와 비슷한 형식의 연못이다.





<곡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연못><가운데 보이는 곡선적인 형태가 강조된 인공섬>

이견대, 용이된 문무왕으로부터 만파식적을 얻은 곳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해안에 위치한 이견대(利見臺, 사적)이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을 위해 세운 감은사에서 600 m 정도 떨어진 해안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문무대왕릉인 대왕암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굴조사 결과 건물터가 발견되었으나 이견대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건물은 건물터가 발견된 곳에 1979년에 옛 건축양식을 추정하여 새로 지은 것이라 한다.



<감은사에서 멀지 않은 동해안 언덕에 위치한 이견대(사적)>

이곳에서 용이 된 문무왕이 나타났다고 하며, 그의 아들 신문왕이 신라의 3가지 보물 중 하나인 천사옥대와 만파식적을 얻었다고 한다. 이견대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발굴조사 결과 이곳에서 건물터가 확인되었다.





<정자에서 보이는 대왕암과 봉길리 해안.><만파식적과 비슷한 옥피리>

서출지, 신라 소지왕과 관련된 전설이 남아 있는 전통 연못

경북 경주시 남산1길 남산 기슭 아래에 자리잡고 있는 서출지(**書出池**, 사적)이다. 서출지는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던 곳으로 <삼국유사>에 연못과 관련된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신라 소지왕때 이곳에서 노인의 편지를 받아 죽을 위기를 넘겼다는 내용으로 그 후 이 연못이 이름이 서출지가 되었다고 한다.



<경주 서출지(사적)>

남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온 개천이 평지를 만나는 지점에 형성된 유수지가 연못을 이루고 있다. 삼국유사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유서깊은 연못이다. 주변에 심어진 수목들, 남산, 정자와 마을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조선후기 임적이라는 사람이 세었다는 정자인 이요당(**二樂堂**)이 있다. 누마루 기둥을 물속에 세워 연못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배롱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나무들><서출지 이요당>

명활성, 신라 경주를 방어하는 주요 산성

경북 경주시 천군동에 있는 명활성(**明活城**, 사적)이다. 이 성은 경주 동쪽 명활산에 있는 둘레 약 6 km의 신라 산성이다. 남산성, 선도산성, 북형산성과 함께 경주를 방어하는 외곽의 주요 산성 중 하나이다. 성을 쌓은 내력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삼국사기>에 405년 왜병이 명활성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 이전에 처음 쌓았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압력이 심했던 5세기에는 궁성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선덕여왕 때 비담이 이곳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있다.



<경주 명활성(사적)>

명활산은 신라 6촌 중 명활산고야촌의 근거지가 되었던 곳이다. 높지 않은 산이나 북쪽 악산과 함께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사이로 북천이 흐르고 있다.동쪽에서 신라로 들어오는 주요 교통로를 지키기 위해 쌓았던 오래된 신라 산성이다.



<경주 명활성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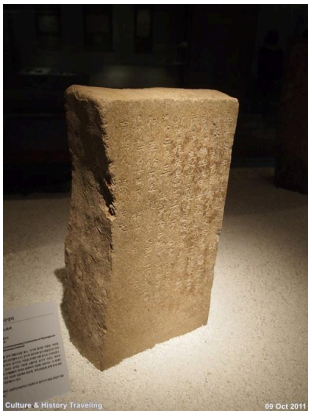
성벽은 6세기 이전에 처음 쌓았으며 후대 여러차례 보수를 하면서 견고한 신라 산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방어가 용이한 능선에는 초기 성벽 형태인 토성을 그대로 두고 계곡이나 방어에 취약한 곳을 석축으로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명활성은 성벽을 쌓은 석축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현재는 남아 있던 일부성벽을 보완하여 옛 모습을 복원하였다. 석축은 자연석을 다듬어서 2층으로 쌓았는데, 석성과 토성이 혼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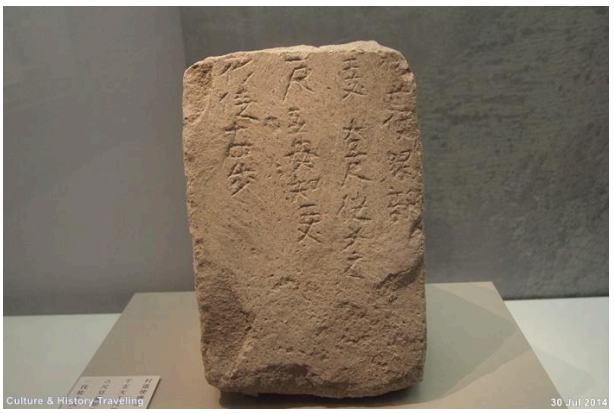




<명활산 계곡에 있는 성벽(복원)> <동쪽으로 이어지는 성벽>

명활성은 여러차례 수리를 거치면서 확장되어다. 진흥왕 때(544년) 다시 쌓았으며 진평왕 때(593년) 성벽을 확장했다. 진흥왕 때 성벽을 다시 쌓으면서 그 내역을 기록한 '명활산성작성비'가 발견되었으며 안압지에서 '명활산성비'로 추정되는 비석조각이 발견되었다.





<경주 명활산성비, 551년><안압지 출토 명활산성비, 551년, 경주 안압지>

관문성, 왜(倭)의 침입에 대비해 쌓은 장성

경북 경주시 외동읍, 울산 북구 범서읍 모화리 등에 있는 통일신라 성벽인 관문성(**關門城**, 사적)이다. 왜(倭)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쌓은 길이 12km에 이르는 장성(**長城**, Wall)이다. 경주와 울산 경계를 따라 7번 국도와 14번 국도 주변에 성벽을 쌓아 전체적으로 장성을 이루고 있다. 성벽은 잘 다듬을 돌과 자연석으로 쌓았는데 이전에 쌓은 산성에 비해 기술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신라 전성기 성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삼국유사> 기록에 의하면 신라 성덕왕 때 39,262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쌓았다고 한다. 성벽은 잘 다듬은 돌을 5단 내지 6단으로 쌓고 그 위에 자연석을 쌓았는데, 위로 쌓아 올리면서 폭을 좁혀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원래는 모벌군성 또는 모벌관문이라 불렀는데 조선시대에 이곳을 관문성이라 부르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주 관문성(사적), 경주와 울산 범서읍을 연결하는 14번 국도를 막고 있는 성벽>

경주 서남쪽 치술령(해발 765 m)과 동남쪽 외동읍 모화리 삼태봉(해발 630 m) 사이를 성벽으로 막고 있다. 가운데에는 있는 순금산(해발 290 m)과 천마산(296 m)과 양쪽에는 산성형태의 성벽을 쌓고 있으며 7번 국도와 14번 국도 주변에 성벽을 쌓아 전체적으로 장성을 이루고 있다. 관문성 남쪽으로는 경주에서 발원하여 울산 태화강으로 흘러드는 동천으로 중심으로 비교적 넓은 농경지가 있다. 7번국도에는 높은 고개나 장애물이 없어 왜(倭)가 신라를 침범한다면 울산항에서 하루정도면 경주까지 도착할 수 있는 짧은 거리이다. 삼국통일 이후 백제와 동맹관계였던 왜(倭)에 대해서 문무왕을 비롯하여 많은 통일신라의 집권자들이 고민했던 부분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순금산에서 보이는 울산 북구 동천 일대> <동천 서쪽편 순금산 일대>

관문성은 동천 옆 위치한 순금산과 천마산을 지나 치술령까지 연결된다. 순금산 일대에는 방어에 용이하도록 테뫼식 산성처럼 성벽을 쌓고 있다. 순금산 일대에는 성벽이 일부 남아 있고 주변 경치와 지형적 조건 등을 살펴볼 수 있어 관문성 탐방로가 개설되어 있다. 관문성 성벽에서 10개의 석각이 발견되었는데, 구간별로 축성을 담당한 군현이 작업한 구역 등을 기록하였다.




<7번국도 동쪽 삼태봉으로 연결되는 성벽><순금산 성벽을 따라 이어지는 탐방로>





<탐방로에서 볼 수 있는 성벽의 흔적>

3. 신라 고분과 왕릉

오릉과 포석정 부근 신라 왕릉

포석정이 있는 남산 서쪽에는 박씨로서 왕위에 오른 왕들의 무덤들이 위치하고 있다. 경주 오릉에는 시조 박혁거세와 2대 남해왕, 3대 유리왕, 5대 파사왕과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의 왕후 알령부인이 묻혔다고 전해진다. 포석정 옆에는 6대 지마왕, 나정 부근에는 7대 일성왕, 남산 배동에는 8대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 55대 경애왕의 무덤이 있다.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를 비롯하여 초기 박씨 왕들과 통일신라 말 박씨로 왕위에 오른 왕들의 무덤에 이곳에 자리잡으면서 왕권에 대한 정통성을 찾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경주 오릉(사적)>



<오릉 부근 신라 왕릉>

경주 오릉(**五陵**, 사적)은 신라 궁성이었던 월성 서남쪽 1.2 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능역에는 4기의 봉토무덤과 1기의 원형무덤이 있는데 신라 시조 박혁거세와 2대 남해왕, 3대 유리왕, 5대 파사왕과 박혁거세의 왕후 알영부인이 묻혔다고 전해진다. 흙을 둥글게 쌓아 올린 원형 봉토분으로 실제로는 이런 형태의 무덤은 신라에서는 4세기 이후에 등장한 무덤의 형태이며, 후대에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경주 미추왕릉이나 김해 수로왕릉 처럼 주요 성씨 시조 무덤으로 조선시대 이후 제단이 설치되는 등 성역화되어 있다. 조선 선조 이후에는 박씨 종친에서 제사를 주관하였다고 한다.



<경주 오릉(사적), 높이 10m의 1호무덤>,>

앞쪽에 있는 1호 무덤은 높이 10 m로 큰 편이며, 뒷편에 높이 9 m의 2호무덤, 높이 7.2 m 표주박형태의 3호무덤, 높이 3.6 m의 4호 무덤, 높이 1.8 m의 5호 무덤이 있다. 후대 무덤의 형식이며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구의 무덤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호무덤, 3호무덤> <표주박형태의 3호 무덤과 뒷편 안쪽에 있는 4, 5호 무덤>

우리나라 성씨 중 박씨는 박혁거세의 후손으로 파사왕계를 제외하면 대부분 통일신라 말기 경명왕(54대), 경애왕(55대)의 후손으로 밀양.반남.고령.함양 등 전국 각지에 그 본을 두고 있다. 경주 오릉은 박씨들의 시조를 모신 곳으로 조선시대부터 성역화되어 넓은 능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조경도 잘 꾸며져 있다.



<경주 오릉 앞 제사를 올리는 건물>

숭덕전은 신라시조 박혁거세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실건물로 조선초 세종 때 세워졌다고 한다. 그 앞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이다. 경주 오릉 능역 내에는 신라 시조 왕비 알영부인이 태어난 곳으로 전해지는 우물인 알영정(**閼英井**) 터가 있으며 그곳에는 이를 기념하는 유지비가 세워져 있다.



<경주 오릉 숭덕전>, <경주 오릉 알영정 터>

신라 6대 지마왕(**祇摩王**, 재위 112~134)의 무덤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지마왕은 신라 5대 파사왕(**婆賢王**)의 아들로 태어나 23년 간 재위하면서 가야, 왜구, 말갈의 침입을 막았다. 능은

포석정에 200 m 떨어진 남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봉분은 밑둘레 38 m로 크지 않은 규모로 굴식돌방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라 6대 지마왕릉(사적)>

시조 박혁거세 탄생설화가 있는 나정(사적) 부근에 있는 신라 7대 일성왕(**逸聖王**, 재위 134~154)의 무덤이다. <삼국사기>에 일성왕은 성은 박씨이며 3대 유리왕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신라 초기에 조성된 왕릉으로 그 존재가 알려진 것은 조선후기인 영조 6년(1730) 이후이다.



<신라 7대 일성왕릉(사적)>

경주 배동 남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배동 삼릉(사적)은 3개의 왕릉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쪽에는 신라 8대 아달라왕, 가운데에 53대 신덕왕, 뒤쪽에 54대 경명왕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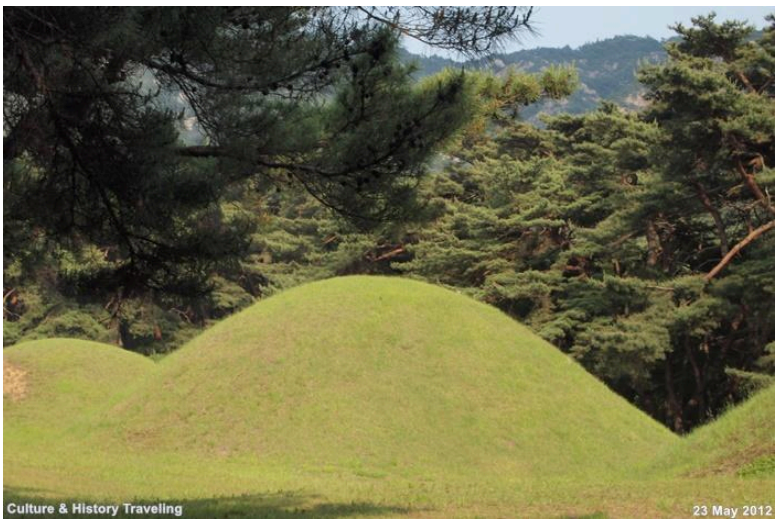
<경주 배동 삼릉(사적)>

경주 남산 서쪽 배동에 있는 신라 8대 아달라왕(**阿達羅王**, 154~184 재위)의 무덤이다. 아달라왕은 7대 일성왕의 장남이다. 백제가 침입하여 백성을 잡아가자 친히 출전했으며 백제가 화친을 요청하자 포로들을 석방하였다. 봉분은 지름 18 m, 높이 5.4 m 규모이다. 현재의 무덤은 조선후기 이후 전승된 내용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신라 8대 아달라왕릉>

신라 53대 신덕왕(**神德王**, 912~917 재위)의 무덤이다. 52대 효공왕(**孝恭王**)이 자손이 없이 죽자 백성들이 헌강왕(**憲康王**)의 사위 자격으로 왕에 추대되었다. 견훤(**甄萱**)과 궁예(**弓裔**)의 침입이 있어 싸움에 진력하였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화장하여 뼈를 잠현 남쪽에 묻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알 수 없으나 경명왕릉과 함께 조선후기 이후 이곳을 왕릉으로 지정되었다.



<신라 53대 신덕왕릉>

신라 54대 경명왕(**景明王**, 917~924 재위)의 무덤이다. 경명왕은 신덕왕의 아들로 고려 태조 왕건(**王建**)과 손잡고 견훤의 대야성(**大邱城**)공격을 물리쳤다. 중국 후당(**後唐**)과 외교를 맺으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신덕왕광 경명왕 재위 기간 신라는 경주 주변 지역만 다스리는데 그쳤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죽은 후 황복사에서 화장하여 뼈를 뿌렸다고 한다. 신덕왕릉과 함께 조선후기 이후 왕릉으로 지정되었다.



<신라 54대 경명왕릉>

신라 제55대 경애왕(**景哀王**, 재위 924 ~927)의 무덤이다. 54대 경명왕의 친동생으로 재위 기간동안 친고려 정책을 이어나갔다. 927년 포석정에서 후백제 견훤의 기습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경순왕은 남산 해목령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신라 55대 경애왕릉>

대릉원 미추왕릉 지구

경북 경주시에 있는 대릉원(**大陵園**) 중 미추왕릉 주변에 위치한 고분군이다. <삼국사기>에 미추왕의 무덤이 대릉(**大陵**)에 있다고 하여 대릉원(**大陵園**)으로 불렸으며 1973년에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이다. 이곳에는 신라 고분을 대표하는 황남대총, 천마총, 미추왕릉을 비롯하여 20여기의 봉분이 남아 있는 무덤이 있으며 봉분이 남아 있는 많은 무덤들이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신라 무덤양식인 돌무지덧널무덤이 대부분이지만 구덩식돌덧널무덤과 독무덤 등 여러 형식의 무덤이 섞여 있다. 주변 황오동, 노동동, 노서동, 인왕동 고분들과 시기적, 지리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어 대릉원으로 통합하여 재지정되었다.



<경주 대릉원을 대표하는 황남대총과 주변 무덤들>

경주 대릉원에 있는 무덤들은 월성 아래에 있는 내물왕릉으로 추정되는 무덤에서 시작되어 북서쪽으로 노서동까지 연결되어 조성되었으며 이후 왕릉은 서악동으로 옮겨 조성된다. 도심이었던 주변지역과는 달리 대릉원 일대에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어 국가 공원 형태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고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주민들이 집을 짓고 모여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경주 대릉원 미추왕릉 지구>

1973년 대릉원을 공원으로 조성할 때 담장부지에서 많은 무덤들이 발굴, 조사되었다. 무덤들은 대부분 돌무지덧널무덤이었으며 구덩식돌덧널무덤과 독널무덤들도 섞여 있었다. 도기 서수형 명기(보물), 상감 유리구슬(보물), 뿔잔과 잔받침대 등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대릉원 입구에서 미추왕릉 사이의 담장을 따라 이어진 숲길 주변은 많은 무덤들이 발굴, 조사된 곳으로 미추왕릉지구 C, D구역으로 분류되었다.



<미추왕릉지구 C, D 구역>

미추왕릉 부근 무덤에서 출토된 도기로 만든 명기(**明器**)이다. 거북모양의 몸을 하고 있으며, 머리와 꼬리는 용모양이다. 머리는 S자형으로 높이 들고 있고 목덜미, 등, 꼬레 뿔이 붙어 있다.

몸통은 비어있고 가슴에는 물을 따르는 주구(注口)가, 있고 엉덩이에 밥그릇 모양의 주입구(注入口)가 있어 주전자 용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기 서수형 명기(보물)>

미추왕릉 부근에서 발견된 길이 24 cm, 상감유리옥 지름 1.8 cm의 옥 목걸이다. 구슬에는 물속을 헤엄치는 오리 16마리와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세밀하게 상감되어 있다. 상감유리구슬은 서아시아나 지중해에서 유행했던 제작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신라의 상감유리구슬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직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감유리목걸이(보물), 경주박물관, 2011년> <뿔잔과 잔받침대, 미추왕릉 C지구 7호 무덤>

신라 제13대 미추왕(味鄒王, 재위 262 ~ 284년)은 경주 김씨 시조 김알지의 후예로 김씨 중 처음 왕위에 올랐다. 경주 대릉원에 있는 왕릉 중 큰 규모의 무덤으로 높이 12.4 m, 지름 15.7 m 정도이다. 경주 김씨 시조에 준하는 위상을 갖고 있는 무덤을 조선시대 이후 성역화되어 있다. 무덤 앞쪽에는 위패를 모신 사당이 숭혜전이 있다.



<미추왕릉(사적)>

미추왕릉을 지나면 길 옆 양쪽에 큰 규모의 무덤 5기를 볼 수 있으며 미추왕릉 뒷편에 작은 무덤들을 볼 수 있다. 101호 무덤을 지나면 중간 규모의 무덤인 99호 무덤이 있고 안쪽에 황남대총을 비롯한 무덤들이 모여 있다. 황남대총 서쪽편 모서리에 천마총이 있다.





<미추왕릉 옆 105호 무덤>, <103호 무덤>





<101호 무덤> <천마총 앞 99호 무덤>

경주 대릉원 155호 무덤인 천마총(**天馬塚**)은 1973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돌무지덧널무덤의 구조가 파악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금관과 관장식, 금제허리띠, 백화수피제 천마문 말다래 등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그 중 자작나무 껍질에 천마(**天馬**)가 그려진 말다래가 출토되어 천마총(**天馬塚**)이라 부른다. 무덤은 높이 12 m, 바닥지름 47 m으로 대릉원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무덤이다.



<155호 무덤인 천마총>

천마총 장니 천마도(**障泥 天馬圖**,국보)는 1973년 황남동고분 155호분에서 출토되었다. 그림은 말의 안장 안쪽에 달아 늘어뜨리는 장니에 그려진 그림이다. 가운데에는 흰색으로 천마가 그려져 있으며, 테두리에는 여러색의 덩굴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5~5세기 고구려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 신라에서 그려진 그림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유물이다.



<말다래(**天馬塚障泥**), 6세기, 경주 천마총, 복제품>




<천마총 금관(국보)><천마총 금제허리띠(국보)>



<천마총 관모(국보)>





<새날개 모양을 하고 있는 금제관식(보물)><천마총 금제관식(보물)>

천마총 목걸이(보물)는 내부 관(棺)에서 출토된 것으로 가슴 윗부분에 있던 것이다. 금, 은, 비취, 유리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화려한 장식구이다. 목걸이는 6줄로 이어져 있는데 좌우와 가운데에는 큰 굽은 옥이 매달려 있다.



<천마총 목걸이(보물)><봉황장식 큰칼(보물621호)과 큰칼(6세기, 천마총)>

경주 대릉원 98호 무덤인 황남대총(皇南大塚)은 길이 120 m의 거대한 쌍분이다. 먼저 조성된 남분이 왕의 무덤이며, 나중에 덧붙여진 북분은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무기둥을 줄지어 세웠던 기둥구멍과 기둥 사이를 연결했던 목재의 흔적이 발견되어 목조가구를 먼저 설치하고 돌을 쌓았음을 알 수 있다. 북분에서는 금관, 남분에서는 금동관을 비롯한 수많은 껴묻거리들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들은 신라 고분 중에서 그 수량이 많으면서 수준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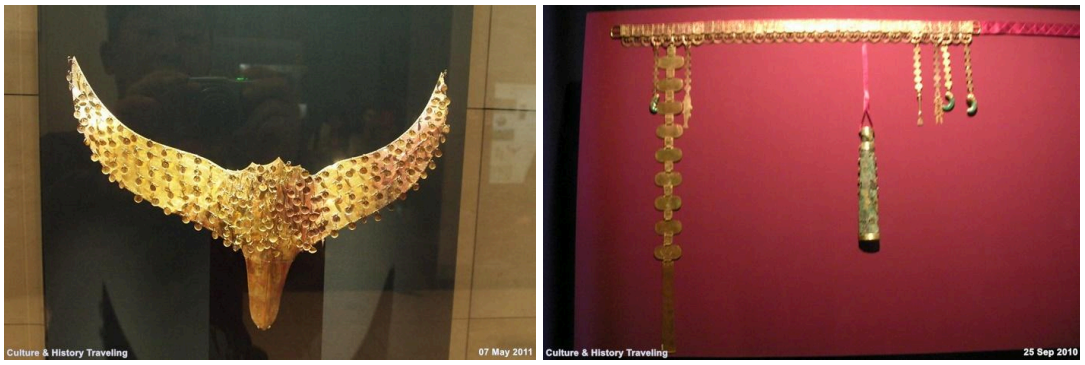


<98호 무덤인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남분 은관(보물)은 높이 17.2 cm, 지름 16.6 cm 크기로 머리띠 위에 3개의 가지가 있는 장식이 있다. 가운데에는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형태의 은판을 붙였으며 좌우에는 깃털이 있는 반달모양의 은판을 붙였다. 신라 관모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다.



<황남대총 남분 은관(보물)><은제관모, 5세기, 황남대총>



<관꾸미개, 금, 삼국시대 5세기, 황남대총, 보물><황남대총 남분 금제 허리띠(보물)>



<황남대총 남분 금목걸이(국보)>



<가슴꾸미개, 5세기, 경주 황남대총>





<황남대총 남분 은제 팔뚝가리개(보물)> <큰칼, 황남대총 남분>





<은제말안장꾸미개와 목심, 황남대총 남분> <봉황모양유리병, 경주 황남대총 남분, 국보>

황남대총 북분 금관(국보)은 높이 27.5 cm이며, 드리개는 길이 13~ 30.3 cm이다. 앞쪽에는 山자형을 연속해서 삼단으로 쌓아 올린 나무모양을 3개 두고 있으며, 뒷쪽에는 사슴뿔모양을 하고 있는 장식 2개을 두고 있다.





<황남대총 북분 금관(국보)><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국보)>





<황남대총 북분 은제관식(보물)><팔찌(보물)>





<반지(보물)> <유리잔(보물), 경주 황남대총 북분>





<황남대총 북분 은잔(보물)><황남대총 북분 금제 고배(보물)>





<황남대총 북분 금은제 그릇(보물)><황남대총에서 출토된 토기들>

황남대총 앞으로는 쌍분 형태인 97호 무덤과 95호 무덤이 있고 동쪽편에 중간 규모의 93호, 92호 무덤이 자리잡고 있다. 97호, 95호 무덤과 미추왕릉 사이는 광장이 형성되어 있다.





<97호 무덤><95호 무덤>





<황남대총 동쪽편에 있는 93호 무덤> <97호 무덤 앞 광장과 100호 무덤>





<광장 서쪽편에 있는 100호 무덤><103호 무덤>





<미추왕릉 뒷편 108호 무덤> <90호 무덤>

1973년 대릉원 미추왕릉지구를 유적 공원화하는 공사를 하면 옛 경주시청에서 계림으로 연결되는 도로 바깥에 있던 90호 무덤이 공원에 포함되면서 계림로 도로공사가 있었는데 이때 많은 무덤들이 확인되었으며 14호 무덤에서 계림로보검(보물)이 출토되었다.



<경주 계림로>

계림로 보검(보물)은 계림로 14호 무덤에서 출토된 길이 36 cm의 칼이다. 철제 칼집과 칼은 녹슬어 남아 있지 않고 금으로 된 장식만 남아 있다. 이런 형태의 칼은 동아시아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유럽이나 중동지방에서 발견되는 형태로 당시 동,서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30호 무덤에서 출토된 항아리는 신라 토우를 대표하는 걸작이다. 높이 34 cm, 윗부분 지름 22.4 cm로 큰 편이며, 위에서 아래로 한번에 5개의 선을 그었고 그 선 사이에 동심원을 새기고 개구리.새.거북이.사람 등의 토우를 장식했다.





<계림로 보검, 보물, 경주 계림로 14호 무덤><토우장식항아리 (국보), 경주 미추왕릉지구>

황남동 고분군

경북 경주시 황남대 일대에 있는 신라의 무덤들인 황남동 고분군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련 번호가 붙여진 흙을 쌓아 올린 봉분이 30여기 남아 있으며 봉분이 없어진 작은 무덤들도 있다.
고분공원으로 조성된 대릉원에는 미추왕릉을 비롯하여 천마총과 황남대총 등이 있으며, 월성 아래 계림 부근에는 내물왕릉을 비롯하여 5기 정도의 큰 무덤들이며, 멀리 서쪽편 황남초등학교 부근에도 6기 정도의 봉분이 있는 무덤을 볼 수 있다. 큰 무덤들은 대부분 돌무지덧널무덤으로 고분과 주위 풍경은 고도 경주를 대표하는 장면으로 손꼽힌다.



<경주 황남동 고분군, 내물왕릉 부근>



<경주 황남동 일대 고분들>

내물왕릉은 무덤은 높이 5.3 m, 지름 22 m의 원형봉토무덤이다. 내물왕 시기 신라의 무덤은 돌무지덧널무덤이 일반적이나 무덤의 규모가 작고 둘레석이 있어 굴식돌방무덤으로 추정된다. 황남대총을 내물왕릉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경주 내물왕릉(사적)>

신라 왕성이었던 월성 북쪽에는 왕릉과 귀족들의 무덤들이 모여 있는 대릉원과 첨성대를 비롯한 왕궁터가 자리잡고 있다. 첨성대 서남쪽에는 경주 김씨 시조 김알지 탄생설화가 담긴 계림과 내물왕릉을 비롯하여 5기의 고분이 자리잡고 있다. 넓은 잔디밭에 첨성대와 계림, 그리고 고분들이 신라 천년의 수도였던 경주를 대표하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물왕릉 앞 28호, 29호 무덤><118호 무덤>

119호 무덤은 황남대총, 노동동 봉황대와 함께 봉분의 규모가 가장 큰 무덤이다. 삼국유사에 첨성대 남쪽에 내물왕릉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왕릉급 무덤으로 내물왕릉으로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황남동 119호 무덤>

황남동 119호 무덤 서쪽 300 m 정도 떨어진 들판에는 신라 고분을 대표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경주시 입구에 위치한 고분답게 가장 이른 시기인 1910년 이전에 일본인에 의해 발굴되어 돌무지덧널무덤의 형태가 확인되었다. 이후 신라 고분 발굴조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



<143호, 144호, 145호 무덤>





<주택가에 있는 124호 무덤><황리단길 앞>

노동동 고분군, 노서동 고분군

경북 경주시에 있는 대릉원(**大陵園**) 중 노동동과 노서동에 있는 고분군이다. 신라의 궁성이었던 월성 북서쪽으로 조성되어 있는 삼국시대 신라 왕과 귀족들을 무덤들로 대릉원 북서쪽 끝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전에는 노동리고분군(사적), 노서리고분군(사적)으로 별도 관리되었지만 주변 고분들은 시기적, 지리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어 대릉원으로 통합하여 재지정되었다. 노동동과 노서동에 있는 무덤들은 도심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금관을 비롯하여 많은 유물들이 출토 되었다.



<경주 노동동, 노서동 일대 고분들>

노동동에는 왕릉으로 추정되는 신라고분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봉황대와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현재 봉분은 없어지고 그 터만 남아 있는 금령총과 식리총이 있다. 봉황대(**鳳凰臺**)라 불리는 125호분은 지름 82m, 높이 22m로 신라 고분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옛 경주를 대표하는 장면으로 자주 등장하는 봉황대는 도심에 있는 작은 동산으로 여겨졌다. 무덤 규모로 볼 때 왕릉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외형 등으로 볼 때 돌무지덧널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봉분 위에 심어진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봉황대 특유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125호 무덤 봉황대>

봉황대 앞에 있는 작은 무덤인 금령총(金鈴塚)은 1924년 일본인 우메하라가 발굴 조사 하였다. 무덤은 바닥에 돌을 깔고 그 위에 널을 만들고 돌과 흙을 쌓아서 봉분을 만든 돌무지덧널무덤이다. 발굴,조사 이전에 봉분은 크게 훼손되었으며 바닥지름 18 m, 높이 4.5 m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껴묻거리 중에 금제 방울이 있어 '금령총'이라 불린다. 금관(금관)과 신라를 대표하는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국보)가 출토되었다.



<127호 무덤 금령총>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明器**, 국보)는 금령총에서 출토된 1쌍의 도기이다. 말을 타고 먼 여행을 떠나는 주인과 하인을 모습을 하고 있는데 죽은이의 영혼이 저세상으로 떠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이다. 신라사람들의 사후세계관, 복식, 말갖춤 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사람의 표정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말탄사람토기, 국보, 삼국시대(신라) 6세기, 경주 금령총>

금령총 금관(보물)은 신라 금관 중 가장 작고 간단한 형식을 하고 있다. 가운데에 '山'자모영이 4단으로 연결된 세움장식이 있고 양쪽에 사슴뿔 모양 장식이 달려 있다. 관테와 가지에는 나뭇잎모양의 원판을 달아 장식했다. 관테 좌우에는 귀고리 형태의 드리개로 장식을 하고 있다. 다른 금관과는 달리 옥장식이 없고 금으로만 만들어졌다.





<금령총 금관(보물)><금령총(金鈴塚) 방울, 금>

126호 무덤인 식리총(飾履塚)은 봉황대 앞쪽에 위치한 무덤으로 봉분 아래쪽 일부만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금령총과 함께 발굴조사된 것으로 직경 30 m, 높이 6 m 정도의 무덤이다. 서역 스타일의 상상속 동물들을 새겨놓은 금동신이 출토되어 식리총(飾履塚)이라 부른다. 금관은 출토되지 않았으며 금동신을 비롯하여, 유리그릇, 청동제기 등 신라와 서역 또는 중국 등과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은 무덤 주인 생전 활동이나 역할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126호 무덤 식리총>

금동신발 바닥면에 서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동물 등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장식의 구성이나 형태에서도 섬세하면서도 이국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 금동신발이 출토되어 식리총(**飾履塚**)이라 부른다.





<금동신발, 경주 식리총, 신라 5세기><국자, 청동, 삼국시대(신라) 5세기, 경주 식리총>

노동동 11호 무덤에서 출토된 목항아리에는 남자가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과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장면을 표현하여 있으며 겉면에 선과 동심원 등을 새겼다. 높이는 40.5 cm, 윗부분 너비는 25.5 cm 정도의 크기이다.



<토우를 붙인 항아리, 경주 노동동, 국보, 삼국시대(신라) 5세기>

노서동에는 신라 최초로 금관이 발견된 금관총을 비롯하여, 스웨덴국왕이 황태자 시절 발굴에 참관했던 서봉총, 해방 이후 처음 발굴하여 광개토대왕 이름이 적혀진 청동그릇을 발견된 호우총, 봉황대와 비슷한 규모의 봉분이 있는 서봉황대 등 다양한 고분들이 모여 있다. 해방이후에도 오랫동안 주택가를 이루고 있던 곳으로 1984년 이후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되었다. 130호 무덤인 서봉황대는 봉황대와 비견할 정도로 큰 규모를 하고 있는 무덤이다. 신라 왕릉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데이비드총과 서봉총, 서봉황대>

128호 무덤인 금관총(金冠塚)은 1921년 경주 도심에서 주택공사를 하던 중 금관이 우연히 발견되어 신라고분의 존재를 알렸던 곳이다. 금관총은 돌무지덧널무덤으로 길이 48 m, 높이 13 m 규모로 대릉원 고분 중 중간 정도이다. 금관 및 금제관식(국보)과 금제 허리띠(국보)를 귀걸이.팔찌 등 장신구와 토기류 등 다양한 종류의 껴묻거리가 출토되었다. 2015년에는 금관총에 대한 발굴조사가 다시 실시되어 '이사지왕도(尒斯智王刀)'라는 명문이 새겨진 칼집 끝 장식을 비롯한 새로운 부장품이 발견되었다.



<128호 무덤 금관총>

금관총 금관은 신라 금관 중 가장 먼저 발견된 유물이다. 가운데에 '出'자(또는 나뭇가지 모양)과 양쪽에 사슴뿔모양의 장식이 있는 전형적인 신라금관이다. 장식의 앞면에는 133개의 달개와 57개의 곱은옥이 달려 있다. 세움 장식의 가장자리에는 한 주의 연속 점무늬, 관테에는 파도무늬가 새겨져 있다. 사슴뿔과 나무가지를 형상화한 시베리아 샤먼의 관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금관총 금관(국보))>

금관총 금제 허리띠(국보)는 금관과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유물이다. 허리띠는 길이 109 cm로 39개의 순금제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드리개는 17개로 옥(玉)같은 장식품과 칼, 향낭, 물고기 등을 표현하고 있다. 드리개는 유목민들이 이동할 때 허리띠에 매고 다녔던 생활도구들을 표현하고 있다.



<금관총 금제 허리띠(국보)>

관모는 얇은 금판을 오려서 만들었으며 모자 위로 새날개 모양 장식을 꽂아 놓았다. 관모는 얇은 금판을 오려서 만든 세모꼴 모자로 위에 두 갈래로 된 긴 새날개 모양 장식을 꽂아 놓았다.





<금관총 관모(국보)><금관총 금제관식(국보)>

2013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금관총 출토 유물을 정리하던 중 고리자루 큰칼의 칼집 끝에서 날카로운 도구로 새겨 쓴 글자를 확인하였다. 판독결과 '**尒斯智王**(이사지왕)'이라는 글자였다.



<고리자루 큰칼>





<굵은고리 귀걸이, 금> <청동제 방울>



<일제강점기에서 작성된 보고서 자료>

금관총 뒷편에 있는 129호 무덤인 서봉총(**瑞鳳塚**)은 일제강점기에 발굴, 조사되었다. 1926년 당시 방한했던 스웨덴의 구스타프 황태자를 참관했다고 하여 서봉총이라 불렀다. 서봉총에는

금관을 비롯하여 각종 청동제 그릇과 금.은 장신구 등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봉분의 조성형식 또한 전형적인 돌무지덧널무덤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봉총은 2개의 무덤이 있는 쌍분으로 남쪽 무덤은 1929년 영국인 데이비드(Devid)가 경비를 부담하여 발굴했다고 하여 데이비드총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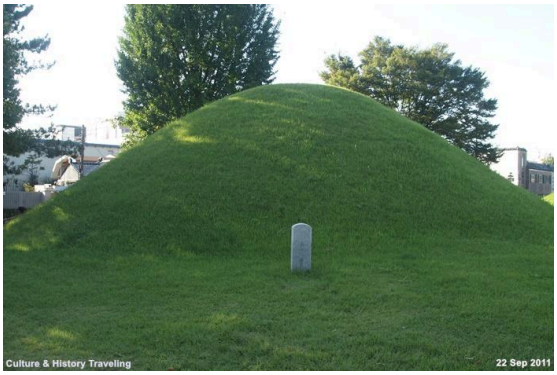
<129호 무덤인 서봉총><서봉총 금관(보물)>





<금귀걸이, 5세기, 서봉총><유리잔, 5세기, 서봉총>

마총(馬塚)은 쌍상총과 같은 굴식돌발무덤으로 통일신라시대 초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무덤은 이미 도굴되었지만, 말뼈와 마구편이 발견되어 마총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이후 국립박물관에서 재조사했는데 석실로 이어지는 널문에는 나무를 사용한 흔적이 확인됐다.





<132호 무덤><133호 무덤인 마총>

서봉황대 앞에는 큰 무덤인 134호 무덤은 서봉총이나 황남대총처럼 표주박형태를 하고 있는 쌍분이다. 137호분은 통일신라 고분의 양식인 굴식돌방무덤이다. 1953년 발굴조사시 나란히 설치된 2개의 주검받침이 있어 쌍상총(**雙床塚**)이라 부른다. 내부는 대부분 도굴되었으며 출토유물로는 토기파편들과 청동제 문고리 등이 있다.





<134호 무덤><137호 무덤 쌍상총>

140호 무덤은 '호우(**壺杅**)'라는 글씨가 돋을 새김되어 있는 청동그릇(보물)이 출토되어 호우총(**壺杅塚**)으로 부른다. 1946년 국립박물관이 해방 후 처음으로 은령총과 함께 발굴하였다. 전형적인 신라 돌무지덧널무덤으로 옆에 있던 은령총과 함께 쌍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당시에는 봉분은 없고 주택이 있었으며 현재는 주위보다 약 2 m 높은 대지만 남아 있다.





<135호 무덤><경주 대릉원 140호분, 호우총, 은령총>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 '광개토대왕'명 호우(보물)><청동그릇, 호우총>

호우총 주변 노서동 215번지 일대에는 원래 호우총과 마찬가지로 민가들이 있었는데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노서동 일대를 유적지로 정비하면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금목걸는 금판으로 속 빈 구형(球形)을 만들어 금줄로 연결한 장식을 44개 연결하여 만든 목걸이로 끝에 비취 곡옥을 달았다. 제작수법이 상당히 정교하며 조형미도 뛰어나다.





<노서동 215번지에 남아 있는 무덤><노서동 금목걸이(보물), 경주 노서동, 5~6세기>

노서동 금팔찌(보물)와 금귀걸이(보물)는 노서리 215번지 민가에서 발견되었다. 금반지는 지름 8 cm 크기로 바깥쪽에 각각 59개씩 돌기를 내어 옥을 상감하였다. 돌기 좌우에 용을 생동감있게 새겨 놓고 있다. 섬세한 조각수법과 조형미가 뛰아난 신라를 대표하는 금팔찌이다. 금귀걸이는 하나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1965년 한국으로 반환되었다. 주고리, 중간식, 마감장식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5~6세기 신라 귀걸이 형태를 하고 있다. 아랫단에는 나뭇잎형 장식으로 마감하였다. 나뭇잎 모양의 장식은 매우 섬세하며 화려한 느낌을 준다. 제작기법과 조형미가 뛰어나며 신라 금귀걸이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경주 노서동 금팔찌(보물), 신라, 5~6세기><경주 노서동 금귀걸이(보물), 신라, 5~6세기>

황오동 고분군, 쪽샘지구

경북 경주시에 있는 대릉원(**大陵園**) 중 황오동 일대에 있는 신라의 무덤들이다. 일제강점기에 70여기의 무덤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10기 정도가 봉분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후 도로를 개설하거나 도시개발 과정에서 많은 무덤들이 확인되었다. 대릉원의 다른 무덤에 비해 봉분의 규모는 작지만 덧널무덤, 돌무지덧널무덤, 구덩식돌덧널무덤 등 다양한 형식의 무덤이 확인되었다. 3~4세기부터 5세기까지 경주지역 신라 무덤들의 형성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황오동 고분군을 대표하는 39호 무덤>

황오동 고분군은 대릉원 동쪽 주택가였던 쪽샘지구와 경주도심과 박물관을 연결하는 대로인 원화로 양쪽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경주 대릉원 황오동 고분군>

황오동 고분군 중 발굴 조사된 무덤은 1호, 4호, 5호, 16호, 33호분 등으로 경주도심과 경주박물관을 연결하는 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경주 구도심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신라 귀족들의 무덤으로 다양한 장신구를 비롯하여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3호 무덤은 경주 도심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볼 수 있는 무덤으로 신라 고분을 대표하는 장면 중 하나이다



<황오동 고분군 3호 무덤>

일제강점기에 신라고분을 조사하면서 무덤에 번호를 부여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4호 무덤과 5호 무덤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발굴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도로로 바뀌었다.



<유리구슬(6세기, 황오동), 곱은옥달린 유리 장신구(6세기, 황오동 4호 무덤), 곱은옥 유리목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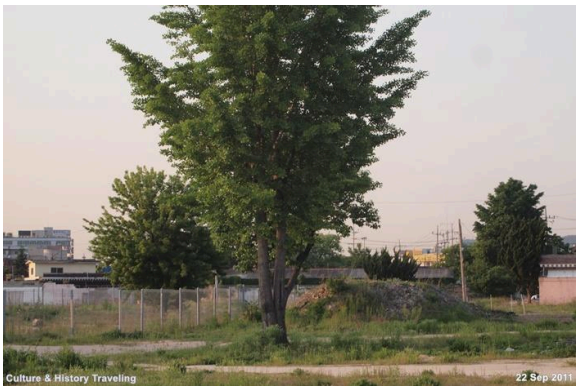
쪽샘지구는 대릉원 동쪽편 일대에 있던 주택가를 말한다. 2007년 이후 국가에서 이 지역을 매입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하면서 고분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200여기 이상의 무덤이 확인되었다. 주택가였던 이곳은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었다.





<3호무덤 안쪽 쪽샘지구 발굴조사 현장><39호 무덤과 공개 발굴조사 중인 44호 무덤>





<발굴조사를 진행중인 38호, 37호 무덤 주변><39호 무덤 옆 33호, 34호 무덤 부근>

황오동 52호 무덤은 1949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하였는데 금장식 작은칼, 금도금 은팔찌, 금귀걸이(보물), 금귀걸이 등이 출토되었다.





<51호, 52호 무덤 부근><황오동 52호 무덤 출토 유물>





<황오동 금귀걸이(보물)> <금귀걸이, 5세기, 황오동 14호 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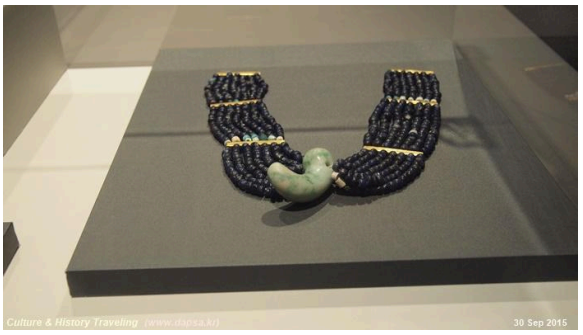
<14호, 15호 무덤 부근><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뒷편 45호, 46호 무덤 주변>





<금귀걸이, 경주 황오동, 1932년 발굴, 5세기><금귀걸이, 경주 황오동, 1962년 발굴, 5세기>

월성로 고분군은 1985년 도로 주변 하도도 정비공사 중 발견된 삼국시대 무덤이다. 4 ~ 6세기 신라 왕족 및 귀족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경주 대릉원 동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56기의 무덤이 발굴조사 되었는데 덧널무덤, 돌무지덧널무덤, 구덩식돌덧널무덤, 독무덤 등 다양한 무덤 형태가 확인되었다.





<가슴걸이(4~5세기, 월성로 가-13호 무덤)><유리구슬(4세기, 월성로 가-13호 무덤), 곱은옥 달린 유리목걸이(4세기, 월성로 가-29호 무덤)>





<금귀걸이(6세기, 노서동 138호 무덤), 금귀걸이(6세기, 월성로 가-5-1호 무덤)><금제드리개(4~6세기, 월성로 가-13호 무덤), 금목걸이>





<쪽샘지구 옛모습>

서악동 고분군과 태종무열왕릉를 비롯한 신라 왕릉

서악동 고분군(사적)은 경주시 서쪽 선도산 남쪽 구릉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고분들이다. 경주 도심에 위치한 대릉원이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귀족들의 무덤과 신라 왕릉들도 서악동 일대에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무덤들은 경주로 향해 뻗은 선도산 주위에 위치하고 있고 형산강이 앞쪽으로 흐르고 있어 배산임수를 이루고 있다. 남북조시대와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풍수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구려의 침입이 예상되는 한강유역과 연결되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다. 고구려와 한강유역 패권을 다투던 시기에 왕위에 올랐던 법흥왕, 진흥왕, 진지왕, 진덕여왕, 태종무열왕과 통일신라 후기 헌안왕과 문성왕의 무덤이 이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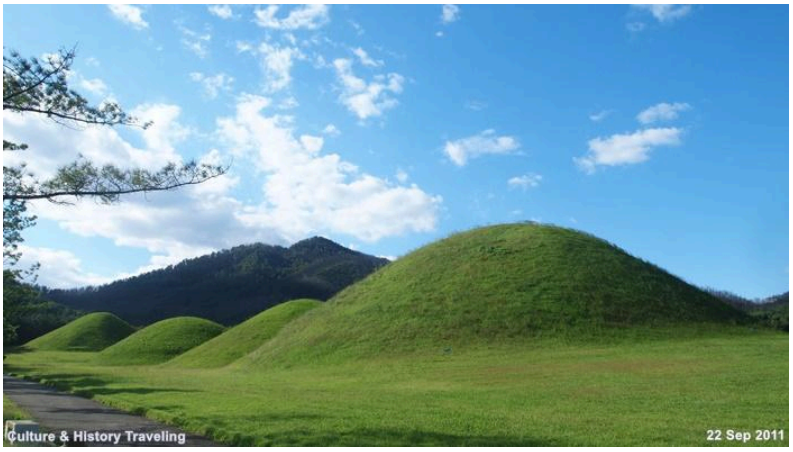


<선도산과 서악동고분군>



<서악동 일대 왕릉과 귀족들의 무덤>

서악동 고분군(사적)은 태종무열왕릉(사적) 뒷편에 나란히 있는 4기의 고분을 말한다.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덤의 주인과 매장방식 등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봉분 밑둘레가 110 ~ 140 m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이고 태종무열왕릉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태종무열왕과 관련된 왕족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법흥왕릉, 진흥왕릉, 진지왕릉, 문흥대왕릉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경주 서악동 고분군(사적)>





<문흥대왕릉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첫번째 무덤> <진지왕릉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2번째 무덤>





<진흥왕릉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3번째 무덤><법흥왕릉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4번째 무덤>

봉분 앞 언덕에 올라서면 경주 도심을 비롯하여 토함산, 남산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보문단지로 들어가는 계곡 입구에 우뚝 솟아 있던 황룡사목탑이 상당이 인상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도심에 있는 대형 고분도 한눈에 들어온다. 통일신라 때 경주는 지금보다 큰 규모의 대도시였으며 경주로 들어오는 방문객들이 도시 분위기에 압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봉분 앞에서 내려다 보이는 경주 도심>

서악동 고분군 아래에는 삼국통일에 큰 역할을 신라 29대 태종 무열왕의 무덤과 그 아들이 30대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의 무덤과 통일신라 후기 귀족 김양의 무덤이 있다.



<

<태종무열왕릉이 있는 능역>

신라 29대 태종(**太宗**) 무열왕(재위, 645 ~661, 김춘추)의 무덤이다. 654년 진덕여왕을 이어서 진골의 신분으로 최초로 왕이 되었으며, 당나라와 연합하여 660년에 김유신 등과 함께 백제를 멸망시켰다.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관료체제와 군사체제를 정비하여 본격적인 국가체제를

확립한 인물이다. 재위기간 동안에 삼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인 문무왕대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삼국사기>에 영경사 북쪽에서 장사지냈다고 한다.



<신라 29대 태종 무열왕릉(사적)>

무덤 앞에 국보 25호로 지정된 무열왕릉비가 있어 신라 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정확하게 왕릉주인을 알 수 있는 무덤이다.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석비는 글자가 적혀진 몸들은 없어지고 거북받침돌과 머릿돌만 남아 있다. 화강석을 세련되게 조각하여 만든 이 석비은 후대에 세워진 많은 석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태종무열왕릉비(국보)>

서악동 고분군 아래에는 태종무열왕의 둘째 아들인 김인문의 무덤과 통일신라 후기 대각간을 지낸 김양의 무덤이 있다. 흙을 둥글게 쌓아 올린 형태로 봉분의 크기는 왕릉보다 약간 작은

규모이다. 통일신라 귀족의 무덤중에서 주인이 알려져 있는 많지 않은 무덤 중 하나이다. 김인문 무덤 앞에는 묘비를 세웠던 거북받침돌(보물)이 남아 있다



<김인문과 김양의 무덤>

통일신라 7세에 만들어진 석비 거북받침돌로 태종무열왕릉비(국보)와 당(唐)의 영향을 받은 초기 석비의 형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조각수법이나 형태 등에서 태종무열왕릉비와 쌍벽을 이루는 작품으로 사실적이면서도 생동감이 넘친다.





<비석이 세워졌던 거북받침돌(보물)><김인문묘 비, 경주 서악동 출토, 695년>

서악동 고분군 북쪽 능선에는 삼국시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을 비롯하여 진지왕의 무덤과 통일신라 문성왕과 헌안왕의 무덤이 위치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진흥왕이 죽은후 애공사(哀公寺) 북쪽 산봉우리에 장사지냈다고 하며, 조선 정조 때 <승정원일기>에 진흥왕릉, 진지왕릉, 문성왕릉, 헌안왕릉이 같은 언덕에 있다는 기록이 있어 현재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흥왕릉, 진지왕릉, 문성왕릉, 헌안왕릉이 모여 있는 능역>



<삼층석탑이 남아 있는 절터>

신라 24대 진흥왕(**眞興王**, 재위 540~576)은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던 한강유역을 빼앗아 삼국통일의 기초를 다졌으며, 대가야을 정복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고 함경도까지 진출하여 신라 최대 영토을 차지하였다. 점령된 지역을 순시하면서 척경비을 세웠다.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하게 했으며, 화랑도를 창설하고 경주에 황룡사를 창건했다.



<신라 24대 진흥왕릉>

신라 25대 진지왕(**眞智王**, 재위 576~579, 김사륜/김금륜)은 진흥왕의 둘째 아들로 왕위에 올라 백제군을 격퇴하고 중국 남조 진(**陳**)과 외교관계를 맺었다.<삼국사기>에 따르면 집권 4년만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삼국유사>에는 국정을 문란하게 운영하고 황음에 빠져 폐위되었다고 한다. 귀족세력간의 대립에서 폐위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골로서 처음 왕위에 오르고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태종무열왕의 할아버지이다. <삼국사기>에 영경사 북쪽에 장사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라 25대 진지왕릉>

신라 46대 문성왕(**文聖王**, 재위 839~857)왕은 신무왕의 아들로 청해진 대사 장보고의 난을 평정하고 지방호족 세력을 견제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던 왕이다. 삼촌인 47대 헌안왕과 함께 신라 전성기를 마련한 진흥왕릉 능역 아래에 자리잡고 있다. 반란을 통해 민애왕을 몰아내고 집권했기 때문에 정통성 확보를 위해 이곳에 능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반란에 큰 역할을 했던

김양의 무덤은 태종무열왕릉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공작지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신라 46대 문성왕릉>

신라 47대 헌안왕(**憲安王**, 재위 857~861)은 신무왕의 이복동생으로 조카인 문성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 호족세력이 세력을 키워나가던 시기 반란을 통해 집권했던 세력으로 신라 왕실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성왕릉과 함께 진흥왕릉 비슷한 규모의 작은 봉분을 쌓아 왕릉을 조성했다. 당나라 능묘제도의 영향을 받아 석물과 십이지신상 등으로 장식했던 이전 왕릉과는 달리 진흥왕릉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신라 47대 헌안왕릉>

김유신 장군 무덤(사적)은 경주시 충효동 송화산 동쪽 구릉에 있다. 김유신은 금관가야가 멸망하면서 투항했던 금관가야 지배층 후손으로 충북 진천에서 태어난 것으로 볼 때 진천지역에서 세력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유신은 선덕왕대에 상대등 비담이 일으킨 반군을 토벌하고, 백제를 공격하여 많은 성을 빼앗는 등 당대에 많은 공을 세웠으며, 여동생이 후에 왕위에 올라 태종무열왕이 된 김춘추와 결혼하여 삼국통일을 이룬 문무왕과 그의 동생 김인문을 낳는 등 일개 귀족세력에서 신라왕실의 주축세력이 되었다.



<경주 김유신묘(사적)>

무덤은 지름 30m 정도의 큰 봉분이다. 봉분 아래에 둘레돌을 배치하고 바깥쪽에 돌난간을 둘렀다. 둘레돌은 조각이 없는 것과 12지신상을 교대로 배치하였다. 12지신상은 당(唐)의 능묘제도의 영향을 받은 신라 33대 성덕왕릉 이후부터인 것으로 볼 때 후대에 장식된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9세기 흥덕왕 때 왕릉의 예를 갖추고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봉분 앞에 놓여진 상석, 서구 신전의 제단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봉분 둘레에는 십이지신상을 새긴 둘레석이 둘러져 있다. 십이지신상은 평복을 입고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세밀하게 잘 새겨진 부조상으로 우리나라 십이지신상을 대표하는 부조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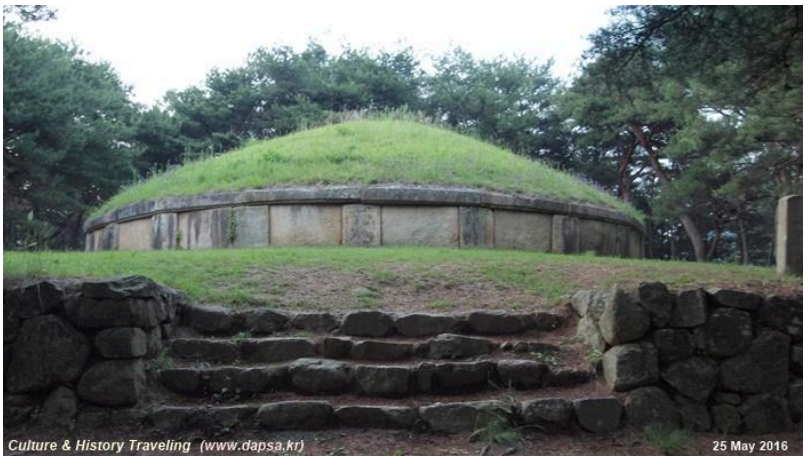


<십이지신상>



<둘레서 바깥 난간석>

신라 28대 진덕여왕의 무덤은 서악동에서 북으로 7 km 정도 떨어진 현곡면 오류리에 위치하고 있다. 진덕여왕은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신라의 2번째 여왕이자 마지막 성골출신 왕이다. 왕위에 있는 7년 동안 김춘추, 김유신과 함께 국력을 키워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사량부에 장사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ㅡ, 사량부는 실제 경주 서남쪽 일대로 추정하고 있어 진덕여왕의 능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신라 24대 진덕여왕릉>

능은 직경 14m규모로 흙으로 덮어 둥근 봉분을 반들고 아래에는 둘레돌을 배치하였다.
둘레돌에는 기둥역할을 하는 12지신상을 새긴 탱석을 끼워넣었다. 둘레석 바깥에는 기둥을 세웠던 흔적이 남아 있다.



<둘레석에 새겨진 12지신상>

낭산 일대 왕릉과 고분

경주 낭산(사적)은 도심 동남쪽 보문동.구황동.배반동 일대에 누에고치모양처럼 남북으로 길게 누워 있는 낮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5세기 실성왕대부터 신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져 왔으며,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선덕여왕과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과 관련이 많은 곳이다. 낭산에는 많은 유적지들이 있는데 북쪽편에는 신라 왕실의 기복신앙과 관련되어 있으며, 삼층석탑이 남아 있는 황복사가 있다. 낭산 남쪽 언덕에는 선덕여왕릉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칠처가람 중 하나이자 문무왕과 관련된 호국사찰인 사천왕사가 있었다. 또한 낭산 허리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의 화장터로 알려져 있는 능지탑지가 있다. 낭산에는 거문고의 명인 백결선생이 살았으며, 문창후 최치원이 공부하던 독서당도 있었다고 한다.



<경주 낭산(사적) 남쪽>

경주 낭산은 신라 왕성이었던 월성 동쪽편으로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도심과 북쪽 자락에는 황복사와 미탄사가, 남쪽에는 선덕여왕릉과 사천왕사가 자리잡고 있다. 울산에서 경주로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다. 왜(倭)의 침략을 경계하기 위해 신성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낭산 남쪽으로 문무왕을 이어 통일신라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의 무덤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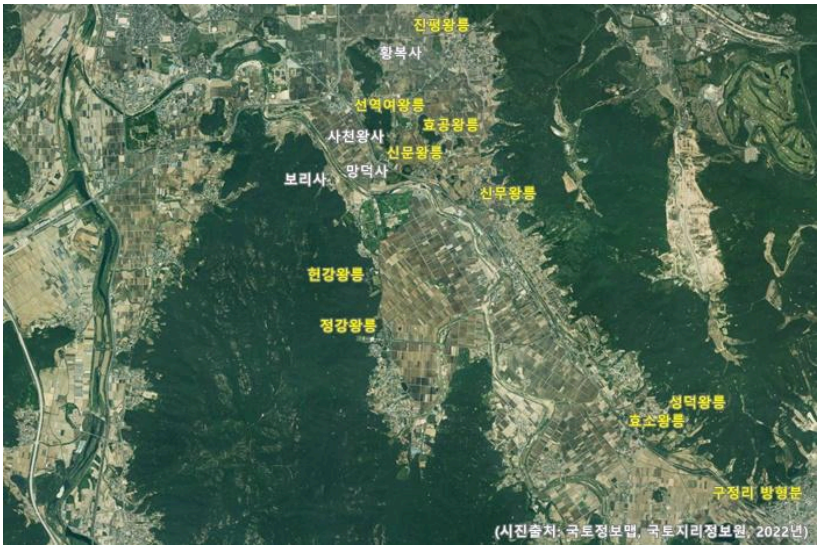


<사천왕사><능지탑지>



<능지탑 근처에서 출토된 석조관음보살 입상><십일면관음보살입상>

신라 26대 진평왕의 능이 낭산 동쪽에 조성된 이래 선덕여왕을 비롯하여 많은 왕릉들이 낭산을 중심으로 울산과 경주를 연결하는 교통로에 조성되었다. 이는 왜(倭)의 침입을 대응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과 이를 계승하고자 하는 후대 왕들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멀리 동해안에 조성된 문무왕릉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삼국시대 백제와 동맹관계였으며 삼국통일 이후 왜(倭)의 높은 긴장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효소왕, 성덕왕, 신문왕, 신무왕 등의 능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왕릉 주변에는 사천왕사를 비롯하여 황복사, 보문동 절터, 망덕사지, 보리사 등이 있었으며 불국사도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낭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신라 왕릉>

신라 26대 진평왕(**眞平王**, 재위 579 ~ 632, 김백정)의 릉은 낭산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황복사지 절터에서 정동 방향으로 700 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진평왕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의 손자이자 선덕여왕의 아버지이다.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선덕여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기까지 약 52년 동안 재위하였다. 이 시기 수(隋)와 고구려간 전쟁으로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唐)이 세워지는 등 국제적으로 격변의 시기였다.



<신라 26대 진평왕릉>

신라 27 대 선덕여왕(재위 632~647, 김덕만)의 능은 낭산 남쪽 정상부 아래에 자리잡고 있다. 둘레 봉분 앞에 상석이 있기는 하나 후대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선덕여왕은 내정에서는 선정을 베풀어 민생을 향상시키고 구휼사업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제와 신라의 적극적인 공세를 김유신과 김춘추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당나라와는 외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무덤은 둘레 74m, 높이 6.8m의 둥근 흙으로 봉분을 쌓은 형태로 아랫부분에는 자연석으로 쌓은 둘레석이 있다.



<신라 27대 선덕여왕릉>

신라 31대 신문왕(**神文王**, 재위 681~692년)의 릉은 문무왕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사천왕사와 선덕여왕릉이 있는 낭산 남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신문왕은 문무왕의 맏아들로 삼국 통일 후 귀족세력을 제압하고 사회안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고교육기관인 국학을 창설하여 학문을 장려하고 문화를 증진하는 정책을 펼쳐 설총, 강수 같은 대학자를 배출하였다. 조선의 태종에 비유되는 왕으로 귀족세력을 탄압하고 과감한 정치적 숙청을 단행하여 전제왕권을 확립하였다. 삼국통일 후 처음 조성한 왕릉으로 봉분의 규모가 크고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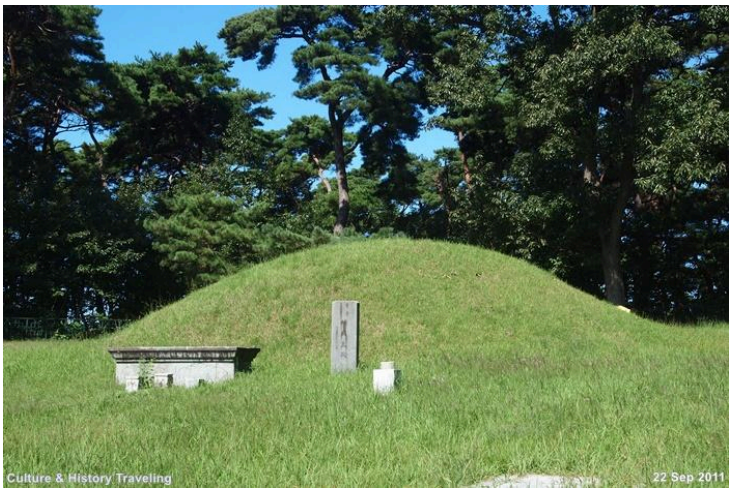
<신라 31대 신문왕릉>

신라 52대 효공왕(**孝恭王**, 재위 897~692년)의 릉은 사천왕사 동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신라 말 혼란기에 진성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며 재위기간 동안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세워졌으며 신라의 영토는 급격히 줄어들고 국력은 쇠약해졌다. 무덤은 둥글게 흙을 쌓은 형태로 규모가 크지 않으며 장식도 거의 없다.봉분 주위에 둘레석으로 사용되었는 돌이 몇개 남아 있다. 신라말 혼란기에 조성된 왕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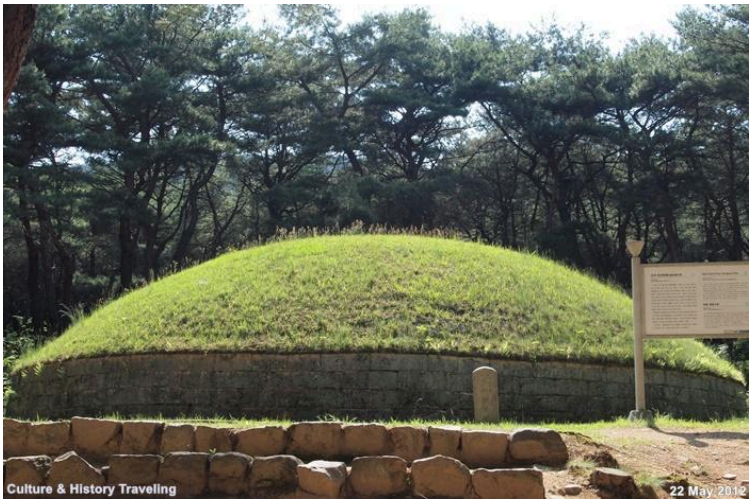
<신라 52대 효공왕릉>

신라 45대 신무왕(재위 839년, 김우징)의 능은 사천왕사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신무왕은 원성왕의 증손으로 839년에 장보고의 힘을 빌어 민애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나 그 해에 병으로 죽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제형산(弟兄山) 서북쪽에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 이 무덤이 신무왕릉으로 알려져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신라 45대 신무왕릉>

신라 49대 헌강왕(재위 875~886년)의 무덤이다. 정강왕릉과 함께 경주 남산 북동쪽 구릉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헌강왕은 신라 48대 경문왕의 아들이며 뒤를 이은 정강왕과 진성여왕이 동생이다. 불교와 학문을 장려했으며 재위기간 태평성대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라 쇠퇴기에 조성한 소박한 왕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라 49대 헌강왕릉>

신라 50대 정강왕(재위 886~887년)은 형인 헌강왕에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1년만에 병으로 죽고 여동생 진성여왕에게 왕위를 물려 주었다. 신라 쇠퇴기에 조성한 소박한 왕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라 50대 정강왕릉>

신라 32대 효소왕(재위 692~702년)의 능은 망덕사지 절터에서 동남쪽으로 4 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효소왕은 신문왕의 아들로 어린나이에 왕위에 올라 20년 정도 재위했으나 대부분 어머니 신목왕후가 섭정하였다. 시장을 개설하여 경제력을 확충했으며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제도를 받아들이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아버지 신문왕을 위해 황복사에 삼층석탑을 세웠다. 어린나이 죽었으며 동생인 성덕왕이 왕위를 이었다.



<신라 32대 효소왕릉>

신라 33대 성덕왕(재위 702~737년)의 능은 효소왕릉과 함께 망덕사지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성덕왕은 신문왕의 둘째 아들로 형인 효소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36년 동안 통일신라 전성기를 이끌었다. 당나라와 외교문서를 전담하는 통문박사를 설치하고, 당나라에 약43회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는 등 당나라왕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유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당나라에서 가져온 공자와 중국 선현들의 초상화를 태학에 두었다. 당의 균전제를 본떠 자영농에서 정전을 지븍하여 재정적인 기반을 튼튼히 하였다. 당에 사신을 보내 발해를 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가 중단하기도했으며. 대동강 이남을 통일신라의 영토로 확정된 시기이기도 하다.



<신라 33대 성덕왕릉>

왕릉은 밑둘레가 46 m, 높이 5 m로 조선 왕릉 봉분규모와 비슷한데 이는 신라가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정형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봉분 둘레에는 둘레석을 세우고 바깥쪽에는 삼각형의 돌로 세워 받치고 있다. 둘레석 받침돌 사이에는 화강석을 입체적으로 조각해서 만든 십이지신상이 세워져 있다. 봉분 바깥쪽에는 난간을 둘러세웠다. 무덤 주위에는 사자상과 문인석을 배치하였으며 약간 떨어진 곳에 비석을 세웠던 거북받침돌이 남아 있다.





<둘레석과 삼각형 받침대><봉분을 둘러싸고 있는 돌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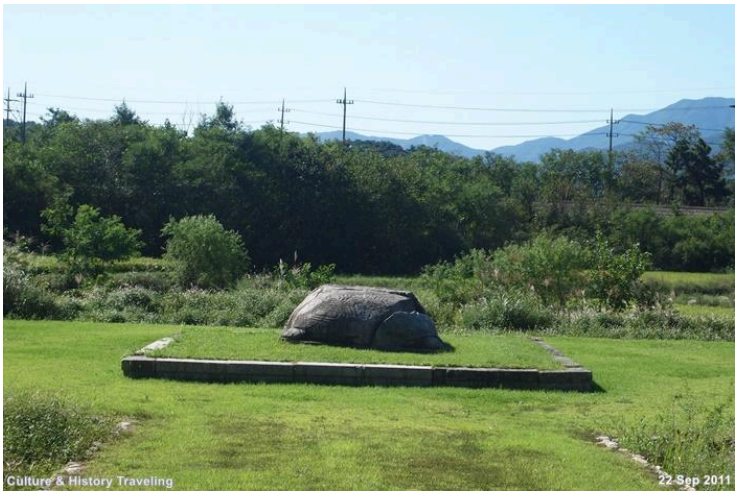
<봉분 앞 혼유석><십이지신상>





<무인석> <사자상>

성덕왕릉비는 경덕왕 때(754년)에 세워졌다. 현재는 비석을 받치는 거북받침돌만 남아 있는데 이를 기준은 성덕왕릉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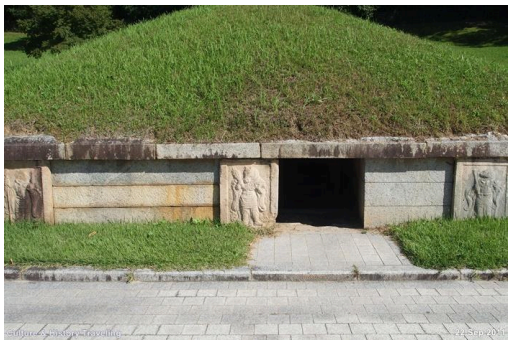


<비석을 세웠던 거북받침돌>

구정동 방형분(**方形墳**, 사적)은 경주 도심에서 남쪽으로 약 9 km 떨어진 불국사 부근에 있는 통일신라 귀족층의 무덤이다. 봉분의 형태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방형분이라 불린다. 봉분의 한변이 9 m, 높이는 2.7 m로 바깥쪽에는 12지신상이 새겨진 둘레석을 둘렀다, 무덤내부는 남쪽에 출입구가 있는 굴식돌방무덤이다. 모서리에는 서역인 얼굴을 하고 있는 무인상과 서역풍의 사자상이 새겨져 있다.



<경주 구정동 방형분>





<십이지산상>



<둘레석 모서리 석재>

신라 38대 원성왕(재위 785~798년)의 능은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에 있다. 원성왕은 상대등 김양상 (선덕왕)과 함께 김지정의 난을 평정한 후 그 공을 인정받아 선덕왕 즉위 후 상대등이 되었고 선덕왕이 후사 없이 죽자 원성왕으로 즉위하였다. 당나라와 통교하였으며 유교정치를 지향하여 독서삼품과를 두어 인재를 등용하였다. 선덕왕과 원성왕 집권기는 귀족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그들 사이의 권력투쟁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하는 통일신라 후대의 정치 혼란상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신라 38대 원성왕릉>

원성왕릉은 12지신상으로 둘레돌을 돌린 원형봉토분으로 봉토 주위에는 수십개의 기둥을 세우고 난간을 설치했으며, 중앙에는 안상이 조각된 서역풍의 상석이 놓여 있다. 봉분에서 떨어진 왕릉 입구에은 사자 2쌍, 문무인석 각 1쌍, 석화표 1쌍이 서 있다. 괘릉은 당나라의 능묘제도를 받아들여 신랑왕릉 중에서는 형식적으로 가장 잘 갖추어져 있으며, 십이지상석을 둘레돌에 새겨 넣는 등 신라 특유의 봉분 양식도 잘 반영되어 있다.



<봉분>





<봉분 앞 혼유석><난간석>





<둘레석 12지신상>

울창한 송림으로 둘러싸인 낮은 구릉에 자리잡고 있는 원성왕릉은 형식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왕릉으로 후대 왕릉 조성의 표본이 되었다. 당나라의 능묘제도를 받아들여서 봉분을 조성하고 그 앞에는 문.무인상을 비롯한 석물을 세워놓고 있다. 조선왕릉의 석물이 봉분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원성왕릉은 봉분과 떨어진 왕릉 입구 출입로 양쪽에 세워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봉분 앞에서 보이는 능역>



<왕릉 입구에 세워진 석물들>





<무인석><문인석>



<사자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동해안에서 200 m 떨어진 곳에 있는 '대왕암'으로 불리는 문무대왕 수중릉이다. 대왕암은 5천만년 전에 형성된 화강암으로 된 자연바위를 이용하여 만든 능이다. 내부 동서남북으로 인공수로를 만들으며, 가운데에는 길이 3.7 m의 거북모양 바위가 수면 아래에 놓여 있다. 실제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부에 바위를 인위적으로 파낸 흔적이 남아 있고, 관련 사실이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 이곳에 문무왕의 유골을 묻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은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감은사(感恩寺)를 창건하였으며, 수중릉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인 이견대(利見臺)에서 만파식적을 얻었다고 한다.



<신라 30대 문무왕릉>

신라 제30대 문무왕(재위 661~681년)은 백제를 정벌한 태종 무열왕에 이어 고구려를 정벌하였으며, 당의 세력을 축출하여 삼국을 통일하는 큰 업적을 남겼다. <삼국사기>에는 문무왕은 자신을 불교식으로 화장하여 동해에 묻어 왜구를 막겠다는 유언에 따라 동해바다 앞 큰 바위에 장례를 치르면서 대왕암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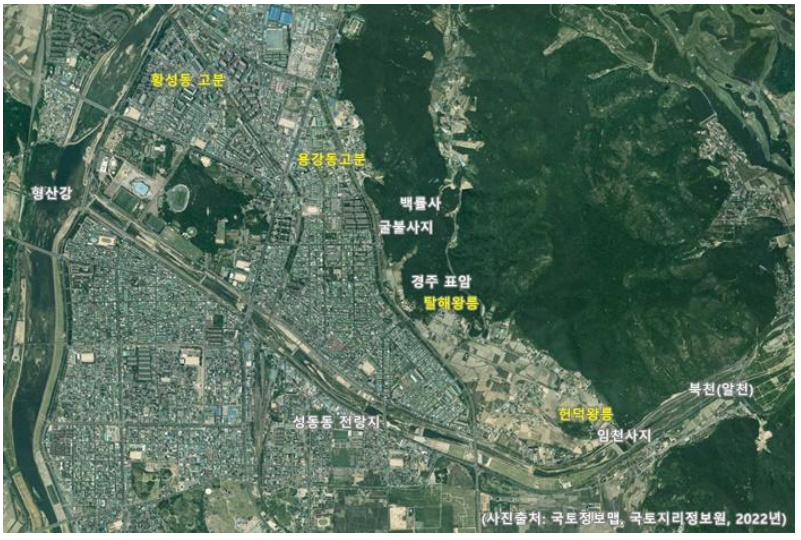
<이견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대왕암과 봉길리 해안>

북천(알천) 북쪽 왕릉과 통일신라 귀족들의 무덤

경주 도심 북쪽을 흐르는 북천(알천) 너머에는 신라를 건국했던 6촌 중 경주이씨 시조인 이알평이 하늘에서 내려온 곳이라 전하는 표암이 있으며 그 앞에 신라 4대 탈해왕릉이 있으며 가까운 곳에 신라 41대 헌덕왕릉이 있다. 신라 42대 흥덕왕의 무덤은 북쪽으로 20 km 떨어진 안강읍 육통리에 위치하고 있다. 헌덕왕과 흥덕왕은 정변을 일으키고 왕위에 올랐는데 왕릉의 위치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탈해왕릉 부근 경주 도심 북쪽 용강동과 황성동에서는 통일신라 귀족 무덤이 발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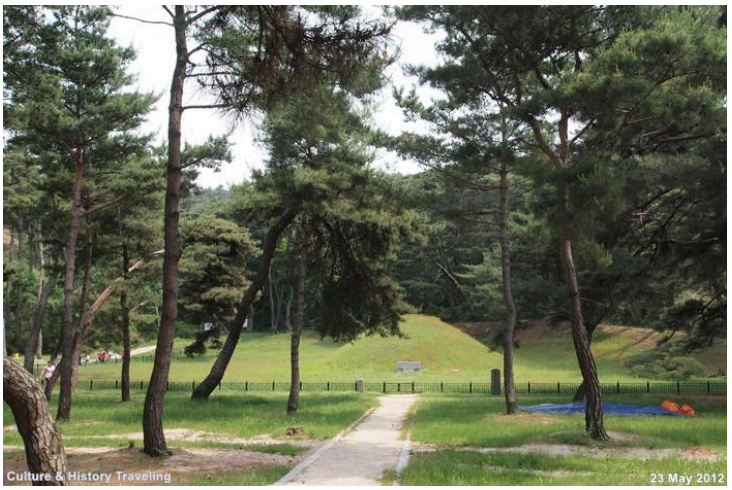


<경주 북천(알천)>



<북천 주변 신라 왕릉과 고분>

신라 4대 탈해왕(脫解王, 재위 57~80)은 일본 북쪽지방에서 바다를 통해 신라로 들어왔다고 전해지며 신라 2대 남해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62세에 3대 유리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전한다. 탈해왕릉은 신라 초기 왕릉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위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이 작은 봉분만 남아 있다. 봉분은 높이 4.5 m, 지름 14.3 m의 원형봉토무덤으로 내부는 굴식돌방무덤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4대 탈해왕릉>

신라에서는 8명의 석씨가 왕이 되었는데 그 기간은 171년 정도이다. 탈해왕의 후손(월성석씨, 경주석씨)은 유래는 오래되었지만 번창하지 않아 2000년 현재 9,500여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한다



<탈해왕릉 앞 숭신전>

신라 41대 헌덕왕(**憲德王**, 재위 809~826, 김언승)의 능은 경북 경주시 동천동에 북천(알천) 북쪽 제방 너머에 있다. 헌덕왕은 원성왕의 손자이자 소성왕의 동생으로 난을 일으켜 조카인 애장왕을 죽이고 즉위하였다. 재위기간 동안 당나라와의 외교관계를 안정화하고, 제방을 수리하는 등 농사를 장려하였다. 반란을 통해 조카를 죽이고 즉위하였으며 귀족세력의 반란 진압했던 것으로 볼 때 통일신라 후반기 귀족세력간의 갈등을 이끌었던 측면도 있었다.



<신라 41대 헌덕왕릉>

봉분은 지름 26 m, 높이 6 m의 원형봉토분이다. 봉분 아래에는 둘레석을 둘렀으며, 바깥쪽에는 난간석이 세워져 있다. 1970년대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되었다. 봉분 앞에는 서구 신전 제단처럼 만들어 놓은 상석이 세워져 있다. 문,무인석 등은 없지만 당나라 능묘제도를 받아들여 조성된 원성왕릉(38대)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



<둘레석 12지신상><난간석>

<삼국사기>에 의하면 826년에 왕이 죽자 천림사의 북쪽에 장사지냈다고 한다. 헌덕왕릉이 있는 곳은 경주 북천(알천) 너머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북천(알천)은 그의 할아버지인 원성왕이 즉위할 때 원성왕보다 서열이 높은 김주원이 홍수로 알천을 건너오지 못해서, 왕으로 추대된 일화가 있는데, 이런 일화를 상기시키면서 집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천사(천림사) 절터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임천사 절터 출토 석조유물>

신라 42대 흥덕왕릉(사적)은 경주에서 북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안강읍 육통리에 있다. 흥덕왕은 원성왕의 손자로 형인 헌덕왕과 함께 정변을 일으켜 애장왕을 죽이고 이찬이 되었으며 헌덕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즉위 후 당에 사신을 파견하고,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로 삼아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당으로부터 차를 들여와 전국적으로 재배하게 하였으며, 복식제도 등을 고쳤다고 한다.



<신라 42대 흥덕왕릉 능역>

왕릉은 봉분 지름 20.8m, 높이 9m의 원형봉토분이다. 봉분 주위에 둘레석을 두르고 있으며 바깥에는 난간석으로 둘러져 있다. 둘레석에는 방향에 따라 12지신상을 새겨 놓고 있다. 무덤

주위 모서리 4곳에는 돌사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무덤 앞에는 문인석, 무인석, 화표석이 1쌍씩 세워져 있다. 앞쪽에는 비석에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거북모양의 받침돌만 남아 있다. 주변에서 '흥덕'이란 글씨가 새겨진 비석조각이 발견되었다. 원성왕릉과 함께 당나라의 능묘제도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구성요소는 원성왕릉과 거의 유사하다.



<신라 42대 흥덕왕릉>



<무인석><문인석><화표석>



<혼유석><난간석>



<12지신상>





<사자상>

무덤 앞쪽에는 비석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거북모양 받침돌만 남아 있다. 비석 몸돌이 없고 거북 얼굴도 많이 파손되었지만, 상당히 웅장하게 힘찬 조각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흥덕(**興德**)'이라 적힌 비석조각이 발견되어 무덤 주인을 흥덕왕임이 확인되었다.





<거북받침돌><글자가 새겨진 비석조각>

경북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통일신라 고분(사적)이다. 시신을 돌방에 안장하는 굴식돌방무덤이다. 1986년 발굴 당시 중요 유물은 도굴되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으나 토용, 청동십이지신상 등이 출토되었다. 문인상과 무인상, 여인상 등의 토용은 당나라 복식의 영향을 받은 당시 신라의 복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무덤이 조성된 기록이 없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발견된 유물들로 미루어 보아 7~8세기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주 용강동 고분(사적)>

토용은 흙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본 떠 만든 것으로 옷이나 모자, 표정 등이 사실적이며, 사회적 지위에 따라 색깔이나 크기를 다르게 만들었다. 무덤에 같이 묻힌 토용은 동시대 당나라 무덤에서 출토되는 도용(**陶俑**)과 그 형태가 비슷하다.





<문관상, 8세기, 중앙박물관><여인상, 8세기, 중앙박물관>



<무덤에서 출토된 청동십이지신상>

황성동 고분(사적)은 인근 용강동 고분(사적)과 함께 고구려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통일신라의 굴식돌방무덤이다. 발굴,조사 결과 봉분과 호석 주변시설, 석실 내부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등을 통해 7세기 중반 처음 조성되었으며 9세기에 시신이 다시 매장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중국 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남녀 인물상, 가축을 표현한 토용과 축성 연대를 확인해 준 인화문토기, 중국제 해무리굽 청자편 등이 있다.



<경주 황성동 고분(사적)>





<남녀 인물상><말머리 모양의 토용>

금척리 고분군, 삼국시대 귀족들의 무덤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에 남아 있는 삼국시대 신라의 고분군인 금척리고분군(사적)이다.
고분군은 모두 50여기의 무덤이 있었는데 봉분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32기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1950년대에 국도를 개설하면서 동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당시 훼손된 2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 뒤 몇차례 조사기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전제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토유물로는 금귀걸이 1쌍 등이 있으나, 많은 편은 아니다. 봉분은 대체로 원형과 표주박 모양을 하고 있다. 4~5세기 마립간 시기에 많이 사용한 돌무지덧널무덤 형식을 하고 있다.



<경주 금척리고분군(사적)>

고분군이 있는 금척리는 대구와 경주를 연결해주던 옛 국도가 지나가는 경주시 건천읍 소재지에서 경주방향으로 약 2 km 정도 떨어진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금척리는 박혁거세왕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늘로 부터 받은 금척을 숨기면서 40여기의 봉분을 조성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북쪽편 건천읍 방향 도로변에 모여 있는 봉분들>

경주 시내 평지에 위치한 고분들보다 규모가 작아 삼국시대 귀족들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쪽에 모량(**牟梁**)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어 삼국시대 신라 6부 중 하나인 모량부 출신
박씨세력들의 무덤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입구에 있는 봉분><도로변에 있는 봉분>



<고분군 북쪽편에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봉분>



<금척리고분군 중 제일 큰 규모의 봉분. 쌍분 형태를 하고 있다.>

4. 불교 사찰과 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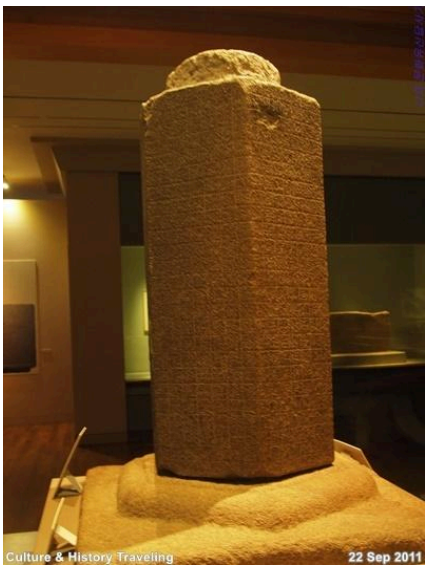
경주 칠처가람, 7곳 신성한 숲에 세워진 사찰

칠처가람(**七處伽藍**)은 삼국시대 경주에 신라 불국토설의 일환으로 신성시 여기던 **7**곳의 숲에 세워진 사찰들을 말한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에 불교를 전한 아도(**我道**)는 경주에 전불시대(석가모니를 포함한 과거칠불) **7**곳의 절터가 있으니 불교를 전파하라는 당부를 받는다. 그곳에 세워진 칠처가람으로는 경주 동쪽 분황사(**芬皇寺**)와 황룡사(**皇龍寺**), 남쪽 낭산 사천왕사(**四天王寺**), 서쪽 오릉 주변 영흥사(**永興寺**), 영묘사(**靈廟寺**), 담엄사(**曇嚴寺**), 흥륜사(**興輪寺**)가 있다. 칠처가람 중 천경림 흥륜사, 삼천기 영흥사, 사천 끝 영묘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출토유물이나 문헌,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경주공고 주변과 흥륜사지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주 칠처가람>

칠처가람은 법흥왕의 불교공인 후 귀족층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당시 그들이 신성시 여기던 숲에 세웠던 혁명적인 조치였다.. 특히 신라 시조인 박혁거세의 능이 있는 오릉 주변에 많았다는 것은 불교 공인을 반대한 세력을 박씨들이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다. 칠처가람설은 **7**, **8**세기에 신봉되었으며 오대산신왕 등과 함께 신라가 불국토였다는 신념을 불어넣어 불교에 귀의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통일신라 때 세워진 불국사(**佛國寺**)는 신라 불국토사상의 절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차돈 순교비, 통일신라, 경주 백률사 출토, 경주박물관>

금교(金橋) 동쪽 천경림(天鏡林) 흥륜사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흥륜사지(**興輪寺址**)는 박혁거세 무덤이 있는 경주 오릉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미추왕 때 고구려 승려 아도가 미추왕에게 청하여 천경림 (**天鏡林**)에 절을 짓고 머물렀다고 한다. 법흥왕 때(527년)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면서 절을 다시 짓기 시작하여 진흥왕 때(533년) 완성되었다고 한다. 흥륜사는 이차돈 순교 이후에 절을 짓기 시작하여 진흥왕대에 완공하였다고 한다. 진흥왕이 말년이 스스로 주지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왕실과 관련이 깊었던 사찰이다. 흥륜사 금당에는 선덕여왕때 승상 김양도가 조성한 미륵삼존불상이 모셔졌으며 벽에는 아도, 이차돈 등 신라십성을 그린 벽화가 있었다고 한다. 황룡사, 사천왕사와 함께 경주를 대표하는 큰 절이었으며, 조선시대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다가 화재로 소실된뒤 폐사되었다고 한다. 절터에는 삼국시대에 가장 큰 규모의 석조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경주 흥륜사지(사적)>

절터에는 높이 1.77 m, 너비 3.92 m의 상당히 큰 규모의 석조가 남아 있었다. 통일신라 전성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규모나 조형미가 상당히 뛰어난 유물이다. 바깥에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데 흥륜사 절터에 있던 것을 경주읍성 안 금학헌으로 옮겼다는 내용이다. 석조유물이 많았던 경주에서도 유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흥륜사지 출토 석조, 8~9세기, 흥륜사지>

절터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 곳에서 '흥'자가 적힌 기와가 출토되어 흥륜사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후에 영묘사라고 새겨진 기와조각이 출토되어 이 곳은 선덕여왕때 세운 영묘사 절터이고 실제 흥륜사는 영흥사가 있었던 현재의 경주공업고등학교 자리에 흥륜사가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사자무늬 수막새, '사(寺)'가 새겨진 암키와, '흥(興)'이 새겨진 수키와, 연꽃무늬 수막새, 경주 흥륜사터, 통일신라, 경주박물관> <연꽃무늬 수막새, 경주 흥륜사터, 중앙박물관>



<사냥무늬전돌, 경주 전 흥륜사지, 남북국시대(통일신라) 8~9세기, 토제, 중앙박물관>

삼천기(三川岐) 영흥사

경북 경주시 사정동 경주공업고등학교 주변은 삼국시대 경주 칠처가람 중 삼천기(三川岐) 영흥사(永興寺)가 있던 곳이다. 영흥사는 신라 23대 법흥왕(法興王, 재위: 514년 ~ 540년)의 부인 보도부인이 건립한 사찰로 최초의 비구니 사찰로 알려져 있다. <삼국유사>에 법흥왕비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영흥사에 살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영흥사는 경주 남천(문천), 서천(인천), 충효천(모량천) 이 만나는 지점 부근에 있어 삼천기(三川岐)에 해당하는 곳으로 추정되는데 흥륜사가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는 경주공업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옛 절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출토된 석조유물들이 학교내 정원과 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영흥사지 절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공업고등학교>

영흥사지 절터는 경주공업고등학교 건물을 세우면서 많은 석조유물들이 출토되었으며 대부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 전시되고 있다. 건물기둥을 세웠던 주춧돌이 많이 보이며 석탑을 구성하는 몸돌, 지붕돌 등 다양한 형태의 석조유물들을 볼 수 있다.





<영흥사지 출토 석조유물, 경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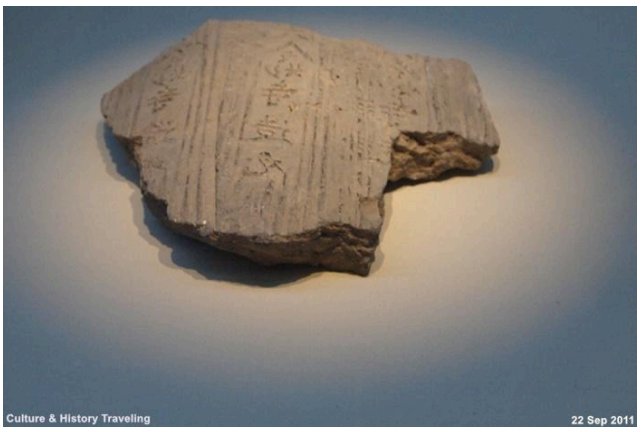
영묘사, 신라 칠처가람 사천미

영묘사(**靈廟寺**)는 신라 칠처가람 중 사천미(**沙川尾**)에 세워진 사찰로 신라 27대 선덕여왕때 창건되었다. 이절에서 개구리가 3,4일 운다는 소리를 듣고 백제 복병이 여근곡에 숨어있었음 감지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영묘사는 사천왕사와 함께 유명한 예술가인 양지스님이 작품이 많았던 사찰로 금당에 모셔졌던 장륙삼존불, 천왕상과 목탑, 기와 등을 만들었다고 한다. 출토유물 중 도깨비얼굴기와에서 화려한 조각수법을 찾아 볼 수 있다. 신라를 대표하는 '신라의 미소'로 잘 알려진 얼굴무늬수막새가 이곳에서 출토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봉덕사에 있던 성덕대왕신종(국보)을 이곳에 옮겨 왔었다고 전한다.



<성덕대왕신종(국보)>

경북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흥륜사지(사적)에서는 '흥'자가 적힌 기와와 '영묘사'라고 적힌 기와가 출토되어 이곳에 있던 사찰이 '영묘사'인지 '흥륜사'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묘사'가 새겨진 암키와, 8~9세기, 경주박물관>

얼굴무늬 수막새는 경주 영묘사 터 출토된 기와에 사용된 수막새로 사람얼굴을 하고 있는 유일한 유물이다. '신라의 미소'라고도 불리는 이 수막새는 경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다. 삼국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무늬 얼굴을 하고 있는 기와는 신라 최고 조각가였던 양지스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 사실적이고 힘찬 표현이 돋보이는 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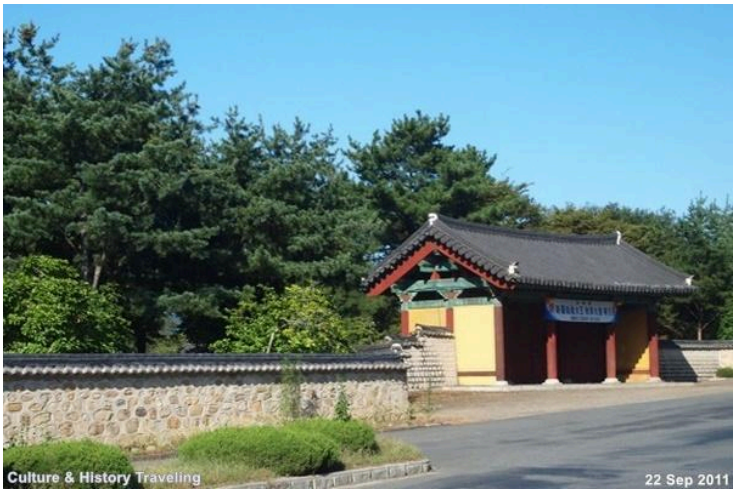




<얼굴무늬수막새, 경주 영묘사터><용얼굴무늬 기와, 경주 영묘사터>

서청전(婿請田) 담엄사

담엄사(曇嚴寺)는 칠처가람 중 가장 늦은 7세기 신문황 때 창건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삼국유사> 등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 무덤이 있는 경주 오릉(五陵) 남쪽으로 추정된다. 담엄사는 고려시대까지 중요한 사찰이었으나 조선전기에 폐사되었다. 담엄사가 있던 자리는 일제강점기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없어지고 절터에 있던 팔부중상이 새겨진 석탑 부재를 비롯하여 석조유물들은 경주박물관 등에 보관되어 있다. 조선초 이곳에 박혁거세를 모시는 숭덕전을 세우면서 석재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담엄사가 있었던 경주 오릉 숭덕전 앞 주차장>



<팔부중, 경주 담엄사지>

<u>용궁 북쪽 분황사</u>

분황사(**芬皇寺**)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삼국시대 선덕여왕 때(634년) 창건되었는데 경주의 신성한 숲 7곳에 조성했던 칠처가람(**七處伽藍**) 중 하나이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계율종을 창시한 자장(**慈藏**, 590 ~ 658년)과 원효(**元曉**, 617 ~ 686년)가 머물면서 수행했다. 황룡사와 함께 선덕왕의 후원을 받았던 높은 위상의 사찰이었으며 원효가 창시했다고 여겨지는 불교 법성종(**法性宗**) 중심 사찰이었다. 고려시대 이후 법성종이 번성하지 못하고 몽골의 침입과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크게 쇠퇴하여 작은 사찰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경주 분황사지>

분황사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분황사 모전석탑(국보)를 비롯하여 솔거가 그렸던 관음보살상 벽화, 웅장한 약사여래상이 모셔졌던 사찰이다. 분황사는 중문, 석탑, 3금당, 강당. 회랑을 갖춘 큰 사찰이었는데 몽고의 침입과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전각 대부분은 소실되었다. 현재 분황사 경내에는 모전석탑을 비롯하여 원효대사비를 세웠던 화쟁국사비부, 당간지주, 석정 등이 남아 있다.



<칠처가람 신성한 숲을 연상시키는 분황사 숲>

2008년 발굴,조사 결과 분황사 석탑 남쪽에 중문터와 긴 회랑 건물터가 확인되었으며 그 앞쪽에 당간지주가 남아 있다. 건물은 석탑, 금당, 중문이 남북으로 일직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 황룡사와 담을 맞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 당시 모습><구황동 당간지주>

분황사 절터에 남아 있는 모전석탑(국보)은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서 쌓은 것으로 선덕왕 때 세워졌다. 남아 있는 신라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원래는 7층 또는 9층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파괴되어 현재는 3층만 남아 있다.



<분황사 모전석탑(국보)>

1층 몸돌에는 4면에 감실을 만들고 입구에 인왕상을 새겨 놓고 있다. 이 인왕상은 이 석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인데 조각상이 사실적이고 생동감이 넘친다. 7세기 신라의 조각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단부 모서리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사자상이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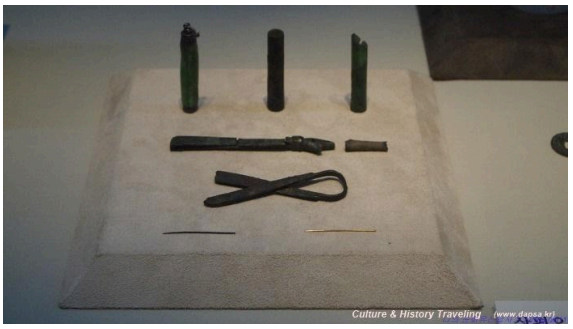




<인왕상><사자상>

석탑에는 사리와 함께 수정.금바늘 등의 공양품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비교적 초기의 사리갖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바늘, 바늘통, 가위, 집게 등이 있어 분황사의 발원자인 선덕왕과 이 사리갖춤을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수정, 향유병, 장신구><선덕여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는 바늘, 바늘통, 가위, 쪽집게>

분황사에는 삼국시대 돌우물(石井)이 남아 있다. '호국룡변어정'이라 불리는 이 우물은 바깥쪽은 8각을 이루고 안쪽은 둥근 원형을 이루고 있다. 삼국통일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오는 유서깊은 우물이다. 분황사지석탑 옆에는 원효대사를 위한 비석인 화쟁국사비 받침돌이 남아 있다.





<분황사 석정><화쟁국사비 받침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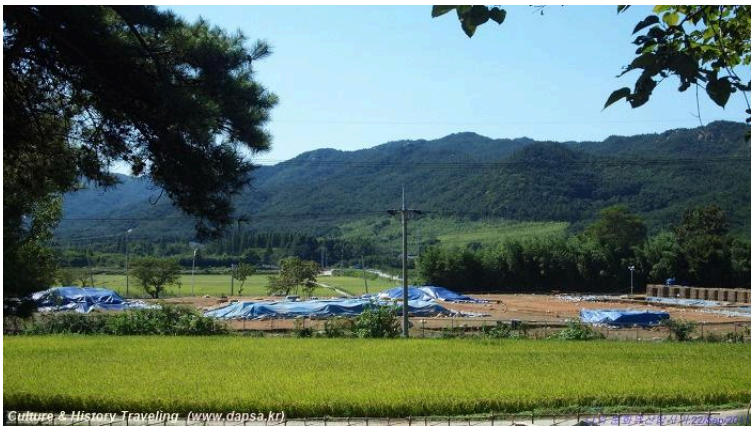
신유림(神遊林) 사천왕사

사천왕사(四天王寺)는 낭산 신유림(神遊林)에 세운 칠처가람 중 하나이다.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처음 지은 사찰로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사천왕사가 위치한 곳은 경주에서 울산을 통해 일본과 연결되는 주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선덕여왕이 죽으면 도리천에 묻어줄 것을 유언했다고 하며, 사천왕은 불교에서 수미산입구를 지키던 천왕들로 선덕여왕릉이 있는 낭산이 수미산임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예언이 실현시켜준 사찰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사천왕사는 경덕왕 때 향가인'도솔가', '제망매가'를 지은 고승 월명이 머물렀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사천왕사 절터(사적)>

사천왕사는 금당을 중심으로 그 앞에 2개의 목탑이 조성된 쌍탑식 가람배치를 하고 있다. 감은사, 불국사 등 통일신라시대에 많이 조성되었던 쌍탑식 가람배치를 처음 시도했다고 한다. 뒷편에는 제단이 있던 건물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천왕사 발굴조사 모습>

사찰입구에 남아 있는 당간지주는 조각수법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당간지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한다.



<사찰입구에 남아 있는 당간지주>

사천왕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문무왕 비(碑) 하단부는 조선 정조 20년(1796)에 경주부윤 홍양호가 발견하였다고 한다. 비석의 상단부는 2009년 경주 민가에서 새로 발견되어 화제가 되었다.





<거북모양을 하고 있는 비석받침돌><사천왕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문무왕 비(碑)>.

금당은 앞면 5칸, 옆면 3칸 규모로 지대석, 면석, 갑석을 갖춘 가구식 기단이며, 계단은 앞쪽에 2개, 옆쪽에 1개씩 설치하였다. 절터에서 발견된 치미는 금당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대한 규모이다



<금당터>

목탑은 앞면 3칸, 옆면 3칸 규모이다. 금당과 마찬가지로 가구식기단을 사용했다고 한다.





<목탑터><목탑터 심초석과 주춧돌>

출토 유물 중에는 천재 조각가 양지스님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녹유사천왕상이 있다. 녹유사천왕상은 그 이전과 이후의 조각작품들과는 달리 중앙아시아의 간다라 미술품의 조각수법과 비슷하게 상당히 섬세하고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목탑 기단부를 장식하고 있던 녹유사천왕상>



<절터에서 발견된 치미>





<절터에서 출토된 도깨비 문양이 새겨진 기와.><글자가 새겨진 기와>

금당 뒷편에 있는 앞면 3칸, 옆면 3칸 규모의 건물터는 사천왕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건물이다. 뒷편 강당이 있던 자리는 일제강점기에 철도가 부설되었다.





<금당 뒷편 건물터>.<뒷편 강당이 있던 자리>

황룡사지, 삼국시대 신라를 대표하는 사찰

황룡사는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 신라인이 신성시여겼던 7곳의 숲에 세워진 칠처가람 중의 하나로 궁궐이었더 동궁(임해전)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진흥왕이 21세가 되던해에 월성 동쪽에 궁궐을 지을려고 하다고 사찰로 고쳐지면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진평왕대에 금당을 비롯한 주요 건축물들과 금당에 모셔진 삼륙존상이 조성되었으며, 선덕여왕대에 당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온 자장의 건의로 9층목탑을 세웠으며, 이후에 종루와 경루가 세워졌다고 한다. 황룡사는 삼국시대에 처음 조성되기 시작하여 9층목탑이 세워짐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호국사찰로서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황룡사에는 자장, 원효 등의 승려들이 강당에서 설법을 전파했으며, 금당에는 솔거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경주박물관에 전시된 황룡사 모형.>

황룡사지에 1976~1983년까지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가람배치와 변천상이 밝혀졌다. 황룡사는 총면적 2만여평에 이르는 넓은 부지에 중문.탑.금당.강당이 남북으로 일렬로 배치된 일탑식가람배치로 지어졌으며 회랑으로 둘려져 있다. 이는 불교가 서역에서 중국을 통해 전해지면서 형성된 전형적인 가람배치로 탑을 제외하고는 궁궐과 큰 차이가 없는 건물배치라 할 수 있다. 이후 사찰이 확장되면서 동.서 금당이 새로 지어졌으며, 중문 안쪽에 경루와 종루가 들어섰다. 반면 불국사의 경우는 대웅전 영역이 이런 가람배치를 적용하면서 바깥쪽에 당시 성행했던 아미타불 신앙과 비로자나불 신앙을 반영하여 별도의 불전들을 세워두고 있다.



<황룡사 가람배치>

황룡사 절터에서는 구층목탑 심층석 사리구멍안에서 사리를 모시는 사리갖춤이 출토된 것을 비롯하여, 땅의 기운을 누리기 위해 묻어두었던 지진구 등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또한 용마루 끝을 장식하는 치미를 비롯하여 수막새, 암막새를 비롯한 각종기와와 전돌 등이 2만여점 출토되고 있다. 특히, 이런 건축자재들은 삼국시대부터 황룡사가 몽고군에 의해 불타버린 고려 고종대까지 다양한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까지 황룡사가 큰 사찰로서 유지되고 있으면서, 계속 중건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룡사 절터>

황룡사는 총면적 2만여평에 이르는 규모로 중문, 탑, 금당, 강당이 일렬로 배치된 일탑식가람배치였으나, 후대에 금당 좌우에 작은 금당이 들어서면서 1탑, 3금당의 가람배치로 바뀌었다. 황룡사 모형을 보면 황룡사는 전체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문을 통해서 출입하면 회랑으로 둘러싸인 황룡사 경내를 들어가는 출입문인 중문이 있고 중문을 들어서면 황룡사의 상징인 거대한 목탑이 자리하고 있고 양쪽에 종루와 경루가 배치되어 있다. 이런 건물배치는 불국사 대웅전 영역 자하문 양쪽에 종루와 경루가 세워진 것과 비슷한 건물배치라 할 수 있으며, 통일신라시대에 나타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남문은 사찰 경내를 들어서는 단순한 출입문으로 주위는 담장으로 둘러져 있다. 황룡사 모형을 보면 황룡사는 전체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문을 들어서면, 신성한 영역인 회랑으로 둘러싸인 황룡사 경내를 들어가는 출입문인 중문이 나타난다.



<남문터><중문터>

중문터에는 앞면 5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초석이 놓여 있고, 초석 크기로 2층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 것 같다. 황룡사는 탑, 금당, 강당이 있는 영역 전체가 회랑으로 둘러져 있다.





<중문터><중문과 연결된 회랑 건물터>

신라 제일의 보물이었던 황룡사 구층목탑은 선덕여왕 12년(643) 당나레서 유학한 자장의 권유로 지었다고 한다. 목탑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바램으로 지었는데 9층은 신라를 둘러싸고 있는 적국을 상징하고 있다. 황룡사 목탑을 세운 내력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출토된 목탑의 조성경위를 기록한 찰주본기에 적힌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백제 장인 아비지가 주도로 건축한 이 목탑은 높이가 80m나 되는 거대한 건축물로 현재 기준으로 30층 정도의 높이라 한다. 찰주본기에 따르면 경문왕 13년(873)에 크게 중건된 것으로 비롯하여 몽고군에 의해 완전히 불타버릴때까지 여섯차례에 걸쳐서 중수되었다고 한다. 목탑건물터에서는 찰주본기가 적혀 있는 사리함을 비롯하여 큰 건물을 세울 때 땅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묻은 지진구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금.은 등 칠보와 거울.칼 등 다양한 형태의 물건들이 출토되었다.



<황룡사 9층목탑 건물터>



<황룡사 9층목탑 모형>

한가운데에 사리함을 모셔두었던 심초석을 덮은 큰 돌이 보인다. 황룡사구층목탑을 세운 내력은 삼국유사와 이곳에서 발견된 찰주본기에 적혀 있다. 선덕여왕 때인 645년에 승려 자장의 권유로 세운 높이 80여m에 이르는 거대한 건축물로 몽고의 침입으로 1238년에 불타버리기까지 약 600여년의 세월 동안 경주 도심에 우뚝서 있으며 경주의 랜드마크가 되었던 웅장한 구조물이었다.





<목탑 주춧돌><목탑 심초석>

황룡사 목탑 찰주본기라 불리는 금동판이다. 목탑 심초석 사리구멍 안에 있던 사라갖춤 중 내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1964년에 도굴된 것을 되찾았다고 한다. 4개의 금동판으로 되어 있는데 탑을 조성한 경위와 871년에 중수한 내용을 새겨놓고 있다. 구층목탑을 세운 경위는 삼국유사와 큰 차이가 없으며, 삼국유사의 신빙을 더해 주는 유물이다.





<황룡사 목탑 찰주본기><사리갖춤을 구성하는 금합, 은합>

황룡사에 목탑을 세우기 전에 땅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묻은 지진구들이다.
가위,칼,팔찌,방울,허리띠 장식 등 일상생활용품들을 묻고 있다. 아마도 토지신에서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황룡사 목탑 지진구들>

현재 남아 있는 황룡사 절터는 1탑, 3금당의 가람배치를 하고 있다. 원래는 신라의 3대 보물 중 하나였던 장육존상 을 모시고 있었던 중앙의 금당만 있었는데, 후대에 아미타신앙, 비로자나신앙 등이 성행하면서 좌.우 양쪽에 금당이 새로 들어섰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국사의 가람배치에서 기존의 가람배치를 따르고 있는 대웅전 영역 외에 미륵전, 비로전 등을 따로 두고 있는 것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금당건물은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처럼 단층건물이면서 외형상 2층건물처럼 보이게 하면서 거대한 불상을 모시고 있는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룡사 금당터>

신라 3대보물로 여겨졌던 거대한 장륙존상을 비롯한 삼존불상을 받쳤던 곳으로 추정된다. 황룡사 금당은 진평왕대(584년)에 기존의 금당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고 하며, 장륙존상은 그 이후에 북조의 석가불신앙이 받아들여지면서 삼존불로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육존상은 무게가 35,007근으로 높이가 4.5~5m에 이르는 거대한 불상이었다고 하며, 양쪽에 보살상을 같이 세웠다고 한다. 황룡사 금당에는 장륙존상 외에도 화가 솔거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기도 한 곳이다.



<금당터에 남아 있는 석조대좌>

경주 황룡사지에서 오늘날 사찰과는 제일 뒷쪽편에 있는 강당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선종이 크게 성행한 통일신라 후기 이전에 세워진 평지 사찰의 전형적인 가람배치라 할 수 있다. 황룡사 강당에서는 원효대사 등 당대의 유명한 승려들이 설법의 강의했던 역사적 의미가 큰 장소이기도 하다.



<강당 건물터>





<동쪽편 회랑 건물터><황룡사 우물>

황룡사 금당 규모와 건물구조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망새라고도 불리는 치미(7세기)가 절터에서 출토되었다. 용마루 끝을 장식하는 치미는 궁궐의 전각 등 대형 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건물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 같다. 황룡사 절터에는 무려 3만여점에 이르는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만든 시기도 삼국시대 진흥왕대부터 고려 고종대까지 다양하다. 이는 황룡사가 여러차례 중수를 거치면서 몽골에 의해 불타버릴때까지 존속했음을 보여준다.





<황룡사지 출토 치미><전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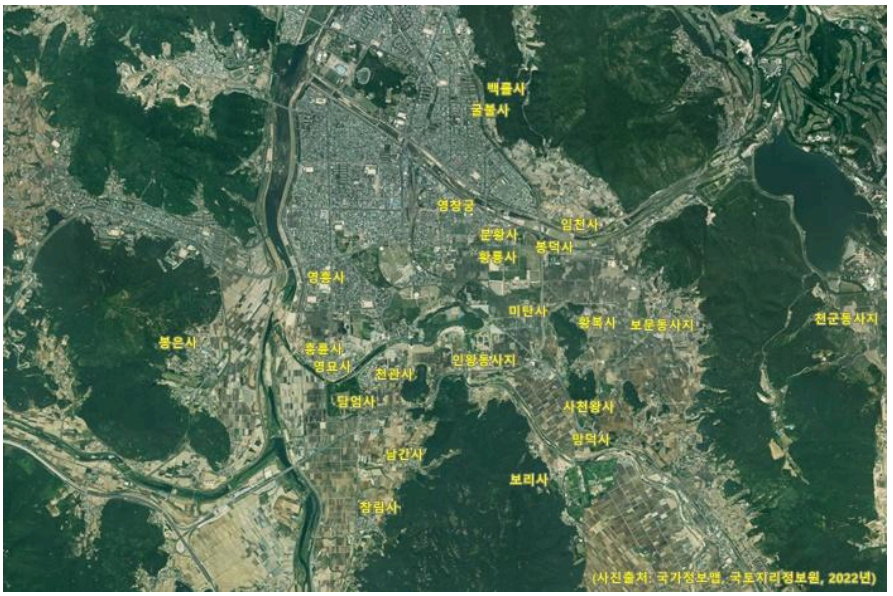




<연꽃무늬수막새, 황룡사터 출토><황룡사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암키와>

통일신라 왕경의 사찰

삼국시대에는 사로국 6부 세력의 근거지에 세워진 칠처가람은 통일 후 문무왕 때 낭산 끝자락 신유림에 사천왕사를 세우면서 완성되었다. 삼국통일 이후에는 씨족 중심의 조상을 모시는 성격의 칠처가람 대신 왕실과 관련된 사찰 등이 창건되었다. 문무왕릉을 지키는 감은사가 대표적이며 국가기관인 성전이 설치되어 국가에서 사찰을 운영하고 관리하였다. 성전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왕실의 후원을 받아 창건된 사찰들과 김유신을 비롯한 주요 귀족세력의 후원을 받은 사찰들이 도심 곳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통일신라 때 전국적으로 창건된 사찰을 절반 정도가 경주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동시대 비슷한 성격의 대도시였던 당나라 장안이나 일본 교토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중국 시안과 경주는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으면서 사찰들도 대부분 없으졌으나 일본 교토는 지금까지도 도심에 많은 사찰들이 남아 있다.



<통일신라 왕경의 불교 사찰들>

<u>성전(聖典)이 설치된 사찰</u>

성전(成典)은 통일신라 때 왕실을 후원을 받았던 사찰에 설치된 관청이다. 칠처가람이었던 사천왕사, 영묘사, 영흥사, 황룡사와 봉은사, 봉덕사, 봉성사, 감은사, 영창궁이 성전이 설치되었다. <삼국사기>에는 각 사찰에 성전이 설치되었던 내력과 관직 등이 기록되어 있다.

영창궁(永昌宮)은 진평왕 때 창건된 월성 북쪽 별궁에 궁궐내 왕실사원으로 문무왕때 성전이 설치되었다. 성동동 전랑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지신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 설치힌 신궁(神宮)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경주 성동동 전랑지>

봉덕사(奉德寺)는 성덕왕 때(706년) 흉년을 구제하고 무열왕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었다고 한다. 봉덕사에는 성덕대왕 신종이 봉안되었는데 조선시대에 큰 홍수로 북천 둑이 무너지면서 수몰되어 없어졌다.



<성덕대왕 신종(국보)>

봉은사(奉恩寺)는 원성왕 때(794년)에 창건된 사찰로 무열왕계열의 시조로 여겨지는 진지왕릉을 지키는 원찰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비슷한 위치에 애공사, 영경사 등이 있었다고 한다.
정확한 절터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진흥왕릉 아래 삼층석탑이 남아 있는 절터가 있다.



<서악동 삼층석탑(보물)이 남아 있는 절터>

봉성사(奉聖寺)는 신문왕 때(685년) 창건되었으며 이후 경덕왕 때 중건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밀교를 이끌었던 혜통(惠通)이 창건에 관여했던 사찰로 나원리 삼층석탑(국보)이 남아 있는 절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원리 오층석탑(국보)과 절터>

감은사(感恩寺)

감은사 절터는 불국사에서 토함산 고개를 넘어 동해안으로 한참을 달리면 해안가 농지가 있는 벌판 언덕에 두개의 거대한 탑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문무왕릉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문무왕이 왜(倭)의 침입을 막고자 감은사를 창건했으며, 그의 아들 신문왕 때(682년) 완성되었다. 경주 사천왕사와 함께 문무왕을 명복을 빌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원찰(願刹)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감은사는 국가기관인 성전이 설치되었다.



<경주 감은사지(사적)>

감은사는 문무왕릉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축대를 쌓아 조성했다. 건물은 중문, 금당, 강당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강당 앞에는 2개의 탑이 세워져 있다. 2기의 탑을 배치하는 것은 사천왕사와 감은사가 처음이며, 사천왕사에서는 2기의 목탑, 감은사에서는 2기의 석탑이 세워졌다. 석탑 또한 목조건축물을 모방해서 만든 것으로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모범이 되었다. 석탑의 형태나 양식, 가람배치, 축대를 쌓아 조성한 부지 등 후대에 사찰건축에 큰 영향을 준 사찰이다.



<금당터>

감은사지 동삼층석탑(국보)은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과 상륜부로 구성된 통일신라 삼층석탑 중 가장 오래되었다. 백제의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마찬가지로 목탑의 형태를 모방해서 간략하게 구현하였다. 후대의 석탑과는 달리 여러개의 석재를 조립해서 만들었다.



<금당 앞에 세워진 동.서삼층석탑>

삼층석탑 3층 몸돌에서는 사리엄장구(보물)가 해체.수리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통일신라 전성기 조각가로 활동한 양지스님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천왕상이 있는 외함, 사리를 보관하는 사리기와 수정사리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삼층석탑 3층 사리엄장구><서삼층석탑 사리엄장구 외함>



<금당 뒷편 강당터>

황복사(皇福寺)

황복사에 대해서는 의상이 출가한 사찰이며, 경문왕이 이곳에서 화장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절터에는 삼층석탑(국보)과 일부 석조유물 외에는 옛 절터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삼층석탑에서 금제여래좌상(국보)과 금제여래입상(국보)을 비롯하여 탑을 조성한 내력을 기록한 사리함이 발견되었다. 사리함의 기록에 따르면 삼층석탑은 효소왕이 부왕인 신문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웠으며, 효소왕이 죽자 아우 성덕왕이 신문왕과 효소왕의 명복을 빌기위해 불상과 보물등을 탑의 2층에 넣었다고 한다. 이는 황복사가 신라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찰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삼층석탑(국보)만 남아 있는 황복사 절터>

삼층석탑 조성 내력이 자세히 적혀 있는 사리함 뚜껑 에는 성덕왕이 부왕인 신문왕과 효소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상 2구를 비롯하여 사리 등을 넣었음을 기록해 두고 있다.





<삼층석탑 조성 내력이 적혀 있는 사리함 뚜껑><금제여래좌상(국보)과 금제 여래입상(국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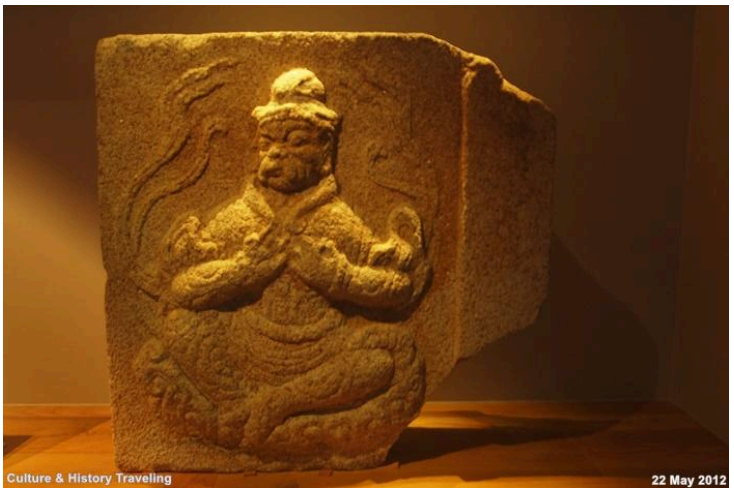
천관사(天官寺)

천관사는 통일신라 때 김유신이 인연이 있었던 기생 천관을 위해 세웠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건립 이후 그 역사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려 중기 이곳을 지나던 이공승이라는 사람이 천관사 내력과 관련된 시를 남긴 것으로 볼 때 당시까지 사찰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절터가 있는 곳은 통일신라 때 귀족층들이 살았던 주거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귀족가문의 후원을 받아 도심 주택가에 세워진 사찰의 입지조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주 천관사지(사적)>

천관사 석탑을 장식했던 팔부중상 중 가루라상이 표현한 탑신 몸돌이 출토되었다. 가루라는 '상상의 새'를 말하는데 이를 이인화하여 입을 새부리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팔부중, 8세기, 경주 천관사지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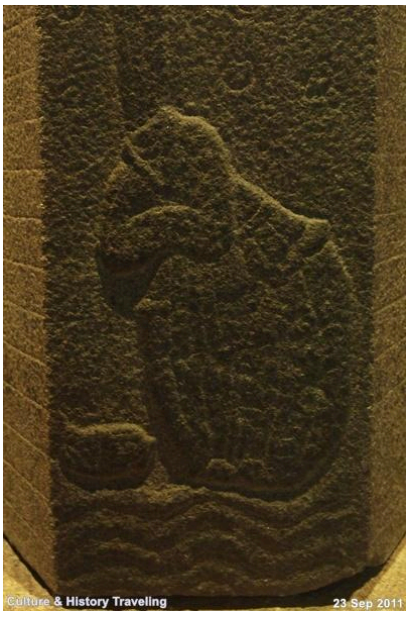
백률사(栢栗寺)

경주시 동천동 소금강산에 있는 사찰인 백률사(栢栗寺)이다. 삼국시대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이차돈의 순교한 장소에 세워졌다. 창건연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삼국유사>에 693년(효소왕 2)에 이 사찰에 대한 대비관음상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백율사에는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금동불상인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를 모시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상당히 번창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후 폐허가 되었으며 그 때 관음상이 없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들이 중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백률사에 있던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와 이차돈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은 일제강점기에 경주박물관으로 옮겨졌다.



<경주 백률사(栢栗寺)>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이차돈순교비에 표현된 순교장면>

굴불사(掘佛寺)

굴불사(**掘佛寺**)는 이차돈의 순교와 관련된 백률사(**栢栗寺**)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8세기에 경덕왕이 백률사를 행차했을 때 염불소리가 들려 땅을 파보니 큰 돌이 나와 4면에 불상을 새기고 불굴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발굴.조사 결과 '동사(**東寺**)'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었으며, 고려시대 쇠북에는 굴석사 (**掘石寺**)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현재 절터에는 통일신라 사방불(**四方佛**)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인 석조사면불상(보물)과 절터였음을 보여주는 건물초석들이 남아 있다.



<굴불사지 절터에 있는 석조사면불상(보물)>

1980년대 이후 절터에 대한 발굴.조사가 있었는데 기와, 주춧돌 등의 건축부재와 '굴석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쇠북 등이 출토되었다.





<절터에서 출토된 건축부재들><쇠북(金**鼓**), 경주 굴불사 터 출토, 고려 1183년>

임천사지(천림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임천사(林泉寺) 절터는 도심 북쪽을 흐르는 북천(알천)변에 있던 통일신라 때 사찰이다. <삼국사기>에 성덕왕 때 큰 가뭄이 들자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임천사 절터에 있던 석탑과 건축부재 등이 제방 안쪽에 있었는데 1991년 태풍 때 일부 유실되면서 경주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신라 41대 헌덕왕릉 남쪽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헌덕왕릉이 천림사(泉林寺) 북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임천사와 천림사는 같은 사찰로 추정되고 있다.



<임천사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헌덕왕릉 남쪽 제방 일대>

절터에 남아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석조유물들은 경주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지기 전 석조유물들이 놓여 있던 곳><다양한 석조유물들>

보문동사지

경북 경주시 보문동에 있는 보문동사지(사적)는 일제강점기에 '보문사(**普門寺**)'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어 절 이름이 확인되었다. 절터에는 물을 담는 그릇인 석조(보물), 당간지주(보물), 연화문 당간지주(보물) 등이 남아 있으며, 금당터와 목탑터가 확인되었다. . 보문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경주에 있던 많은 사찰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낭산 북쪽의 황복사, 낭산 남쪽의 사천왕사와 삼각형을 이루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경주 보문동 사지(사적)>

절터 규모는 크지 않은 편으로 서쪽에 당간지주(보물), 북쪽을 200 m 정도 떨어진 곳에 연화문 당간지주(보물)가 있다. 북쪽 연화문 당간지주와 금당 사이에 손을 씻고 물을 마시는 석조(보물)이 놓여 있어 북쪽으로 출입 통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문사지 석조(보물)><연화문 당간지주(보물)>

천군동 사지

천군동 사지(사적)에는 삼층석탑 2기가 남아 있으며 절터 대부분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금당, 강당, 중문 건물터가 확인되었으며 절의 규모는 남북 79 m, 동서 61 m이다. 발굴당시 출토된 유물들은 대부분 기와이며 절터에서는 화강석 건축자재 일부를 볼 수 있다. 쌍탑식 가람배치를 하고 있지만 다른 사찰과는 달리 금당 좌우에 회랑을 두고 있지 않다. 석탑의 양식 등으로 볼 때 8세기 후반 이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주 천군동사지 동.서 삼층석탑>

삼층석탑 주변에는 절터에서 출토된 석재들을 볼 수 있다. 발굴,조사 당시 출토된 기와조각같은 유물들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특별한 유물들은 출토되지 않았다.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절터><주춧돌>

고선사지

경북 경주시 암곡동에 있었던 고선사(高仙寺) 절터 출토유물들이다. 고선사의 창건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원효가 머물렀던 곳으로 신라 29대 무열왕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에 원효대사가 이곳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 1913년 절터에서 원효의 행적을 기록한 서당화상비(誓幢和尙碑) 조각이 발견되었다. 절터에는 신라를 대표하는 석탑 중 하나인 고선사지삼층석탑(국보), 거북받침돌 석등대석 등이 있었다. 1975년 덕동댐 공사로 절터가 수몰되면서 유물들은 경주박물관으로 옮겨졌다.



<고선사지 삼층석탑(국보)>

서당화상비는 고선사 절터 출토된 원효대사를 기르는 비석이다. 9세기초 원효대사의 손자 설중업이 세운 것이라고 한다. 경주박물관에는 고선사지에서 출토된 거북받침돌을 볼 수 있다.



<서당화상비><고선사지 출토 거북받침돌>

감산사지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불국사와 신라 원성왕릉(괘릉)에서 멀지 않은 마을 뒷편에 남아 있는 감산사(**甘山寺**) 옛 절터이다. 현재 절터에는 이곳에서 출토된 석조비로자불상을 모신 대적광전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불전들이 들어서 있으며, 뒷편에 통일신라 때 조성된 삼층석탑과 주변 공터만이 이곳에 옛절터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감산사지>

절터에서 발견된 석조아미타여래입상 광배에 감산사 창건내력이 적인 명문이 남아 있다. 명문에 따르면 719년(성덕왕 18)에 김지성이 부모의 명복을 빌고, 국왕과 일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창건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이곳에서 출토된 석조미륵보살입상, 석조아미타여래입상은 현재 중앙박물관에서 소장.전시하고 있다.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석조아미타여래입상(국보)>

원원사, 통일신라 밀교를 이끌었던 사찰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봉서산 기슭에 있는 원원사(**遠願寺**)는 통일신라 밀교 해동 진언종(**眞言宗**)을 이끈 안혜, 낭유 등과 김유신 등이 호국사찰로 창건했다고 한다. 절터에는 십이지신상과 사천왕상이 새겨진 동.서삼층석탑과 금당터, 석등 등이 남아 있다. 명랑법사가 세운 사천왕사와 함께 통일신라 밀교의 중심이 되었던 사찰이다. 절터 아래에는 최근 중건된 사찰이 있다. 밀교(**密教**)는 비밀의 가르침이란 뜻으로 문자나 언어로 표현된 현교(**顯教**)를 초월한 최고의 가르침을 말한다.



<금당터><절터 아래에 있는 원원사>

절터 가운데에는 2개의 탑이 나란히 있는 쌍탑이 남아 있다. 2개의 모두 같은 양식으로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려놓고 있다. 그 양식으로 보아 8세기 중엽 통일신라 전성기때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주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보물)>

장항리 사지

장항리 사지는 불국사에서 감은사지와 대왕암으로 연결되는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절터이다. 절터에는 서오층석탑(국보)와 동탑의 석재들, 석조불대좌가 남아 있다. 토함산 동남쪽 계곡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좁은 공간에 2개의 탑을 세우고 동쪽에 금당이 배치되어 있다. 강당이나 회랑 건물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쌍탑, 1금당의 가람배치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석조대좌 위에 놓여 있던 불상은 상반신만 남아 있는데 현재는 경주박물관 마당에 전시되어 있다. 절의 이름이나 내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장항리 사지>

절터 동쪽에는 불상을 모셨던 석조대좌가 남아 있는 금당터가 있다. 석조대좌에는 안상에 신장상과 동물상이 새겨져 있으며 위에는 불상을 꽂았던 큰 구멍이 있다. 불상은 절터에 흩어져 있었는데 복원하여 경주박물관 마당에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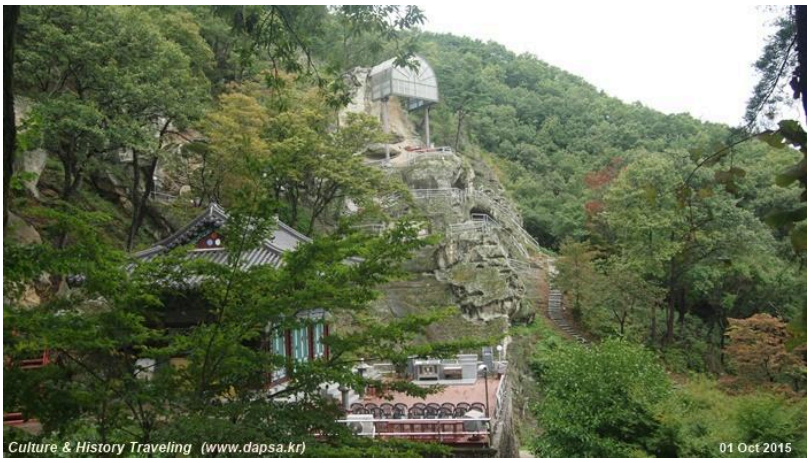




<경주박물관에 전시된 불상><석조대좌>

함월산 골굴사

경주시 양북면 함월산 자락에 위치한 골굴사(**骨窟寺**)는 선덕여왕 때 인도에서 온 승려 광유가 기림사와 함께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함월산 자락 응회암 절벽에 크고 작은 12개의 석굴에 불전 등을 조성해 놓고 있다.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마애여래좌상(보물)이 주불전이라 할 수 있으며, 약사굴, 관음굴, 지장굴, 산신굴, 나한굴 등 크고 작은 석굴들이 자리잡고 있다. 조선후기 겸재 정선이 그린「골굴석굴도」에는 석굴 앞에 목조 전실이 표현되어 있다. 대적광전을 비롯하여 불전과 요사채들이 새로 지어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석굴사원의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의 전통 무술일 선무도를 수행하는 수련원이 개설되어 있다.



<경주 함월산 자락에 위치한 골굴사>

석굴 중 가장 윗부분 바위에 새겨놓은 마애불상(보물)이다. 자연석의 석질이 고르지 않이 일부 손상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조각수법이 뛰어나며 입체감이 돋보인다. 경재 정선의 그림에서는 목조전실이 표현되어 있다.



<마애여래좌상><골굴사 석굴들>

함월산 기림사

경주시 양북면 함월산에 자리한 기림사(**祇林寺**)는 선덕여왕 때(643년) 인도 승려 광유가 처음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전통사찰이다. <삼국유사>에 신문왕이 만파식적을 얻어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서 잠깐 쉬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원효대사가 기림사를 크게 중창했다고 하나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당시 기림사가 존재했던 것으로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불상에서 출토된 복장전적에 고려시대 전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고려시대에 크게 번창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림사는 조선시대에 크게 번창하여 경주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불국사를 말사로 거느렸다고 한다.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은 낮은 기단에 건물을 세워 웅장하지만 위압감을 주지는 않고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을 준다. 내부에는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과 뒷편 탱화인 비로자나삼불회도(보물)를 모시고 이다. 강당 건물인 진남루는 넓은 마루로 되어 있으며, 병영이나 수영에서 운영했던 객사와 비슷한 규모와 형태이다. 승병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불전인 대적광전><진남루>

정혜사지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정혜사지 절터에는 13층석탑(국보)이 남아 있다. 1층 기단 위에 13층의 탑신을 쌓아 올린 높이 5.9m의 석탑이다. 기단부는 단층으로 토축을 쌓아 놓은 형태이다. 1층 몸돌은 모서리에 사각형의 돌기둥을 세웠으며, 그안에 다시 작은 기둥을 세워 문을 만들어 보았다. 1층 지붕돌은 여러개의 돌을 합쳐서 만들었다. 탑신 2층부터는 몸돌을 작게 만들어 거의 보이지 않고, 마치 지붕돌만 올려 놓은 것처럼 보인다.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국보)>

남사리 삼층석탑, 용명리 삼층석탑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옛 절터에 남아 있는 삼층석탑은 2층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려놓고 있다. 기단과 탑신 몸돌에 기둥모양을 새겨놓은 것 외 특별한 장식이 없는 전형적인 통일신라 삼층석탑이다.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옛 절터에 남아 있는 삼층석탑은 높이 5.6 m의 이 석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려놓았다. 기단과 탑신 몸돌에 기둥모양을 새겨놓은 것 외 특별한 장식이 없는 전형적인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모습을 하고 있다



<남사리 삼층석탑><용명리 삼층석탑>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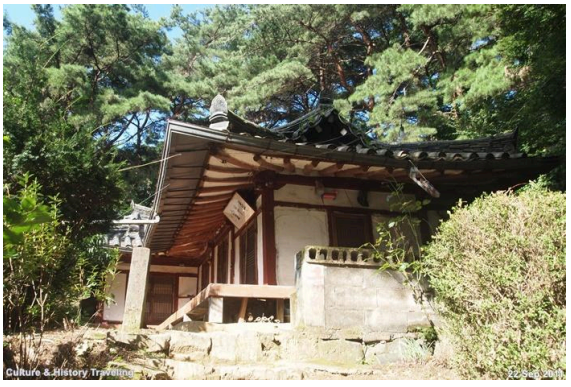
경북 경주시 율동에 있는 마애여래삼존입상(보물)이다. 벽도산 서쪽 바위를 깎아 만든 마애불상이다. 서방극락세계를 다스린다는 아미타불을 본존불로 하고, 왼쪽에는 관세음보살상이,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이 있는 삼존불상이다. 후대에 조성된 마애불상에 비해 돋을새김이 입체적이고 표현이 사실적이다.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보물)과 조각수법이나 양식의 거의 비슷하다. 통일신라 전성기인 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주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보물)>

경주와 대구를 연결해주는 옛 도로에서 부근 두대리 마을을 지나서 산길로 조금 들어오면 마애불상이 있는 곳으로 올라 올 수 있다. 불상 앞에는 작은 사찰이 자리잡고 있다.





<불상이 새겨진 바위><불상 앞 작은 암자>

단석산 신선사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단석산(**斷石山**) 중턱에 있는 신선사(**神仙寺**)는 7세기 초에 조성된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굴사원이다. 거대한 자연암석이 'ㄷ'자형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인공적으로 지붕을 덮어 석굴사원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단석산은 신라 화랑들이 수련했던 곳으로 김유신이 검으로 바위를 내려쳐 바위가 갈라졌다고 해서 단석산이란 이름이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경주 단석산 마애불상군(국보)>

석굴 내부 바위에는 10구의 부처와 보살상이 새겨져 있다. 본존불인 미륵보살(여래입상)이 북쪽면에 새겨져 있으며, 동쪽에는 관음보살, 남쪽에는 지장보살을 새겨 삼존불을 이루고 있다. 지장보살이 새겨진 남쪽면에 '신선사(**神仙寺**)에 미륵석상 1구과 삼장보살상 2구를 조각하였다.'는 400여 자의 글자가 새겨 있어 이곳에 신선사라는 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북쪽 암벽에 입체감있게 새겨진 주존불><반가사유상이 있는 삼존불상>

토함산 불국사(사적),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사찰

경주 불국사는 신라 경덕왕 10년(751)에 짓기 시작하여 혜공왕10년(774)에 완공한 사찰이다. 불국사가 처음 창건된 것은 법흥왕 때 였다고 한다. 그후 경덕왕 때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크게 중창하여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불국사는 쇠락하기는 했지만 조선중기까지 2,000여칸에 이르는 전각이 있었다고 하면, 임진왜란때 왜군이 절에 무기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두 불태웠다고 한다. 이후 대웅전을 중심으로 일부 전각들이 중건되기는 했지만 옛모습을 찾지 못하고 쇠락하여 대웅전, 극락전, 자하문 등 일부 건물만 명맥을 유지해오다가 1970년대 발굴.조사를 거쳐 건물터만 남아 있던 무설전,관음전,비로전,경루,회랑 등이 복원되고, 기존의 건물들 또한 크게 수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토함산 불국사>

불국사는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사찰로 2,000여칸에 이르는 건물이 있었던 최대의 사찰이었다. 불국사는 토함산 아래에 인공적으로 석축을 쌓고 건물을 올려놓고 있다. 불국사의 공간은 크게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공간과 불상들을 모신 불전들로 나눌 수 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공간은 불교가 한반도에 전파된 이래 대부분의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중문,탑,금당,강당이 일자로 배치되어 있고, 회랑으로 둘러져 있는 가람배치를 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공간들은 불상을 모신 불전을 중심으로 공간을 형상하고 있다. 오늘날 불국사는 5개의 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석탑이 있는 대웅전 영역에는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있고, 극락전 영역은 아미타불, 비로전 영역은 비로자나불, 관음전 영역은 관음보살 그리고 나한전이 있다. 극락전에는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금동아미타불좌상(국보), 비로전에는 금동비로자나불좌상(국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창건당시부터 불상을 모셨던 불전을 다수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황룡사를 비롯한

전통적인 사찰과른 다른 불국사만의 공간배치라 할 수 있다. 불국사는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사찰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5년 석굴암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불국사 가람배치>

불국사는 궁궐과 마찬가지로 바깥세상과 부처님의 세상을 구분해주는 개천이 흐르고, 돌다리를 건너 사찰로 들어간다. 지금의 다리는 70년대 불국사를 대대적으로 중건.복원하면서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통일신라시대에도 비슷한 규모의 다리를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불국사 일주문><천왕문>





<연못><당간지주>

불국사 석조(보물)는 통일신라 때 제작된 것으로 직사각형을 하고 있으며,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고 있다. 석조는 부처님의 세상인 사찰로 들어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를 갖는 곳으로 이슬람사원이나 카톨릭 성당입구에서도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불국사 석조>

대웅전 영역

삼층석탑과 다보탑이 있는 대웅전 영역은 당시 평지사찰에서 볼 수 있는 중문, 탑, 금당(불전), 강당이 일렬로 배치된 가람배치를 하고 있다. 이는 경사진 언덕에 축대를 쌓고 사찰을 조성했지만, 기존 사찰양식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의 불국사에는 천왕문이 출입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통일신라시대의 가람배치로 볼 때 자하문이 출입문 역할을 하고 있다. 자하문은 2층 계단 다리인 청운교와 백운교를 건너서 오르게 되어 있으며, 다리 아래는 냇물이 흐르도록 설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국사 대웅전 영역>

청운교 및 백운교는 2단의 계단으로 된 다리이다. 불국사는 경사진 지형에 인공으로 석축을 쌓고 불전을 조성했는데, 그 중심이 되는 대웅전 영역은 의도적으로 석축을 높게 쌓아 부처님의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고 있다. 33계단으로 이루어진 청운교.백운교는 다리의 형식으로 한 것은 부처의 세계인 대웅전 경내와 속세를 가르는 물이 다리 아래로 흐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청운교 및 백운교>

자하문은 불국사의 중심이 되는 대웅전 영역을 출입하는 문으로 전통 가람배치에서 중문에 해당한다. 현재의 자하문은 조선후기 사찰건축을 참조하여 복원한 것이지만 청운교.백운교, 석축, 회랑 등과 함께 원래의 가람배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대 당나라 장안의 궁궐 건축양식을 잘 따르고 있다.



<자하문>

불국사 대웅전 영역은 회랑으로 둘러져 있으며, 중문 양쪽으로 범영루와 자경루를 두고 있다. 범종, 목어, 법고 등 부처님의 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범음구를 달아 놓는 누각으로 하늘로 비상하는 새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다른 사찰의 범종각이나 일반적인 누각에 비해서 높이가 높고 날렵하게 지어졌다. 폐허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옛 불국사 사진에서 자하문과 함께 웅장하게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궁궐 건축에서 망루에 해당하는 궐(闕)에 해당한다. 석축은 1층에는 큰돌을, 2층에는 작은 돌로, 그 사이에 잘다듬은 화강석으로 쌓고 있다. 기둥과 난간은 화강석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목조건축물을 보는 듯 하다.





<범영루><자경루>

자하문을 들어서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석가탑이라 불리는 삼층석탑과 다보탑이 있다. 2개의 석탑 안쪽에는 지금은 조선후기 불전의 양식을 하고 있는 대웅전이 있고, 그 앞에 석등이 세워져 있다. 대웅전 경내는 사방이 회랑으로 둘러져 있고, 중앙에 금당이 있는데 이는 궁궐 정전영역의 건물배치와 같다. 이는 로마시대 공공건물이나 신전 등에서 유래한 바실리카양식으로 중국 자금성이나 취푸 공묘 등에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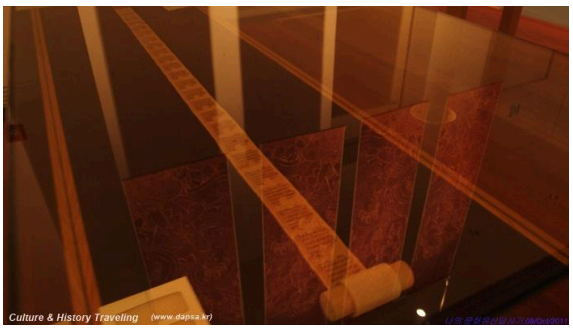
<불국사 대웅전>

불국사를 대표하는 장면으로 2개의 탑을 연상시키는 대웅전 경내에 우뚝 서 있는 삼층석탑과 다보탑이다. 보통 쌍탑이 세워진 경우 비슷한 형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불국사는 전혀 다른 방식의 석탑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나란히 서 있는 두개의 탑 중 서쪽편에 있는 석가탑은 현세의 석가모니불을 상징하고 있으며, 다보탑은 석가모니의 설법을 증명하는 다보여래를 상징한다고 한다. 삼층석탑은 단아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다보탑은 크고 작은 기둥들로 화려하게 꾸며진 석탑이다. 전란등으로 불국사가 타버렸을 때도 석가탑과 다보탑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오늘날까지 불국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된 석탑이라 할 수 있다. 불국사 마당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을 보면 그림,사진,동전 속에서 볼때의 약간 왜소함에 비해 실물의 크기에 감탄을 하게된다.



<불국사 삼층석탑>

불국사 삼층석탑(국보)은 현세의 부처인 석가모니를 상징하기 때문에 석가탑이라 불렸으며, 아사달의 전설이 담겨 있어 무영탑(그림자가 보이지 않는탑)이라고도 불렸다. 감은사지 삼층석탑에서 이어져온 통일신라 삼층석탑을 대표하는 석탑이다. 2층의 기단위에 3층의 탑신과 상륜부를 올려놓고 있는 이 석탑은 간결하면소 빼어난 조형미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다라니경><사리함>

다보탑(국보)은 일반적인 석탑과 그 형태가 완전히 다른 특수형 석탑을 대표하는 석탑으로 정식 명칭은 '다보여래상주증명탑'이라 한다. 이는 석가여래의 진리를 다보여래가 증명한다는 연유하며, 석재로 목조건축물을 세우듯 화려함을 특징으로 한다.



<불국사 다보탑>

불국사 이전 주요 사찰의 가람배치에서 중요한 요소였던 강당건물인 무설전이다. 앞면 8칸에 맞배지붕을 하고 있는 조선후기 양식의 건물이지만, 원래 건물 구조를 바탕으로 복원하였고, 현재남아 있는 여러 절터에서 비슷한 규모의 건물터를 볼 수 있기때문에 원형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강당은 신도들을 모아놓고 부처님의 설법을 강론하는 장소로 이곳에서 의상대사가 설법을 하였다고 한다.



<무설전>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도 불국사에서만 볼 수 있는 사찰 경내를 둘러싸고 있는 회랑이다. 회랑은 로마시대 신전이나 공공건축물인 바실리카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동아시아에 불교가 전파되면서 같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을 모신 불전과 국왕을 상징하는 궁궐 정전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불국사 대웅전 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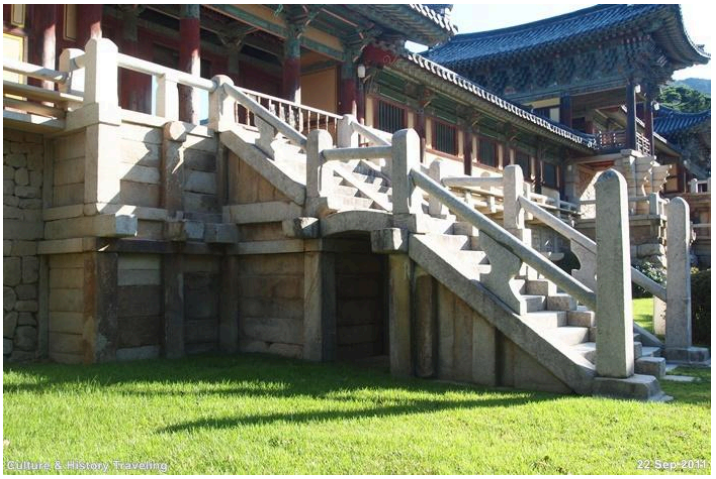
극락전은 대웅전 서쪽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웅전 영역과 마찬가지로 인공적으로 축대를 쌓고 그 위에 불전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웅전에 비해 낮게 축대를 쌓아서 상대적인 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극락전은 대웅전과 별개로 안양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며, 역시 국보로 지정된 연화교와 칠보고를 올라서 경내로 들어선다. 극락전이 있는 경내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은 없지만 회랑으로 둘러져 있다. 조선중기에 중건된 극락전에는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을 모시고 있다.



<극락전 영역 추입문인 안양문>

극락전 영역

안양문을 오르는 다리인 연화교.칠보교(국보)이다. 청운교.백운교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석축의 높이가 낮아 완만하게 처리되었다. 연화교는 지금은 닳아 보이지 않지만 돌계단에 연꽃잎을 새겨 놓았다. 창건당시 이 다리를 오르면서 극락왕생을 빌었다고 한다.



<연화교.칠보교>

불국사가 다른 사찰과 다른 특징으로 인공적으로 석축을 쌓아 불전을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석축으로 화강암석재로 기둥과 보를 만들고 그 안에 자연석을 채워서 석축을 만들고 있는데, 대웅전 석축은 1단, 극락전 석축은 2단으로 만들고 있다. 불국사의 불전들은 대부분 조선후기에 중건되었는데 비해 석축을 비롯한 석조구조물은 통일신라시대 김대성이 절을 창건할 때 부터 존재해왔다.



<불국사 가구식 석축>

안양문을 들어서면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전을 볼 수 있다. 대웅전과 마찬가지로 석등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는 최근에 유명해진 돼지상을 세워놓고 있다. 극락전은 원래 불전이 있던 기단 위에

조선후기 불전을 중건하였다. 앞면 5칸, 옆면 3칸으로 상당히 크게 지었는데 기단에 비해 불전 건물을 크게 지어 균형감이 없어 보인다. 극락전에는 금동아미타여래좌상(국보)이 모셔져 있다.





<극락전 영역><금동 아미타여래좌상(국보)>




<극락전 돼지상>

비로전, 관음전, 나한전, 법화전 영역

불국사는 중문, 탑, 금당, 강당으로 이루어지는 이전의 사찰들과는 달리 다양한 신자들의 바램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불전들을 따로 세워 놓고 있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초기에 가장 많은 숭배를 받았던 아미타불을 모신 불전인 극락전이 대웅전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뒷편에는 초석만 남아 있는 법화전지, 화엄불교에서 중요시되는 비로자나불을 모신 비로전, 많은 서민들이 따르는 관음보살을 모신 관음전, 부처님의 제자들을 모신 나한전이 있다.




<초석만 남아 있는 법화전터><불국사 사리탑>




<나한전><관음전>

비로전에는 통일신라 불상인 금동비로자나불좌상(국보)이 모셔져 있다. 건물은 앞면 5칸에 주심포양식을 쓰고 있다. 비로자나불은 산스크리트어로 '태양'을 뜻하는데, 화엄종에서는 본존불로 모시고 있는 부처이다.




<비로전><금동비로자나불좌상(국보)>

<u>경주 석굴암 석굴(국보), 대표적인 석굴사원이자 불교미술의 걸작</u>

동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토함산 동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석굴암 석굴(국보)이다.
'석불사'라고 불린 이 석굴암은 통일신라 경덕왕 10년(751년) 김대성이 불국사와 함께 건립한

것으로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세웠다고 전해진다. 석굴의 구조는 앞쪽은 전실은 사각형을, 본존불이 모셔진 주실은 원형을 하고 있다. 이는 동양의 천원지방(**天圓地方**,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실에는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본존불을 중심으로 천부상.보살상.나한상이, 전실에는 인왕상(금강역사)과 팔부중상이, 복도에는 사천왕상이 새겨져 있다. 본존불에 대해서 앉은 자세나 손갖춤 등이 정형화된 불상과는 달라 석가여래라는 의견도 있고, 비로자나여래라는 의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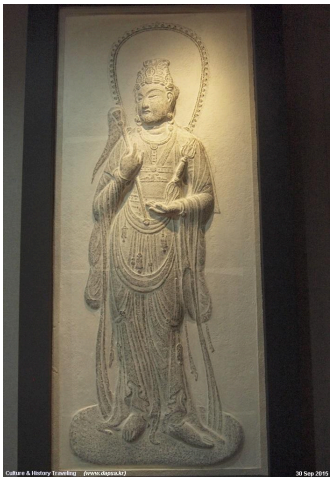
<토함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석굴암 석굴>

석굴암 석굴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석굴사원이다. 석굴사원은 인도에서 시작되어 대승불교의 전파경로인 아프카니칸.중앙아시.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해진 대표적인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전파의 형태이기도 하다. 인도나 중앙아시아, 중국의 석굴들은 바위산에 굴을 파서 석굴을 조성한 것과는 달리 석굴암은 화강암 석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석굴을 조성하여 만든 것이다. 이런 형식은 한대(**漢代**) 이후 중국과 고구려 고분에서 볼 수 있는 돌로 만든 돌방무덤과 비슷한 형태이다. 이를 석굴사원에 응용한 점에서 독창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석굴사원에는 부처의 일생이나 설법내용을 그린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석굴암 석굴에는 화강석을 조각해서 만든 본존불을 비롯하여 많은 조각상들로 석굴 내부가 채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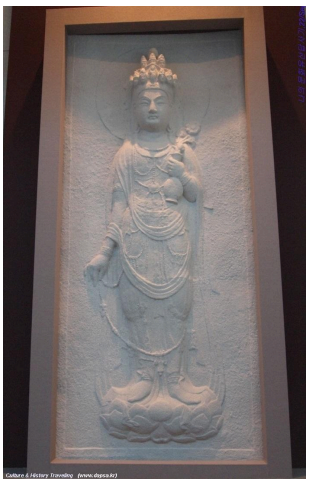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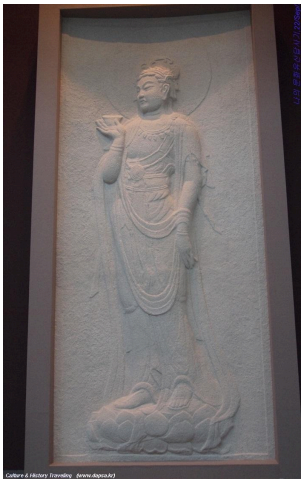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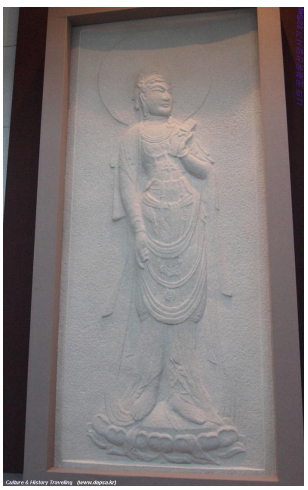
석굴암 석굴 내부는 앞쪽 전실 벽면에 팔부중상이 부조로 새겨져 있으며, 복도 입구에는 인왕상이 본존불이 모셔진 주실을 지키고 있다. 범천상은 석굴암 석굴 본존불이 모셔진 주실 입구 좌.우에 제석천상과 함께 부조로 새겨져 있다. 석굴암 제석천상은 신들의 제왕답게 몸에는 임금처럼 소매가 길고 화려한 도포식의 옷을 입었고, 왼손바닥 위에는 제석천의 무기인 벼락을 형상화한 금강저(金**剛杵**)를 올려 놓았다.



<석굴암 내부>

<석굴암 범천상 복제품(탁본)><석굴암 제석천상 복제품(탁본), 1910년 제작>

<본존불 뒷쪽에 배치된 십일면관세음보살상, 문수보살, 보현보살, 복제품(탁본), 1910년 제작>



<석굴암 석재들>

2차례에 걸친 석굴암 석불 수리과정에서 이 석굴사원의 보호를 위해 보호각이 세워져 있다. 오랜세월동안 동해를 바라보고 있던 석굴암 본존불은 지금은 이 보호각으로 시야가 막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석굴암 보호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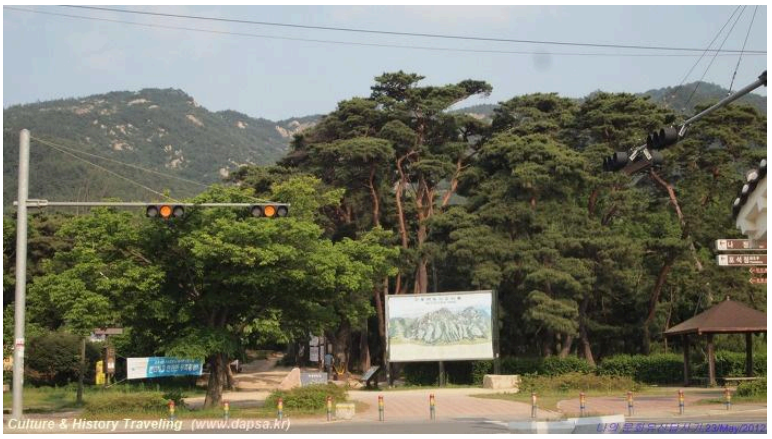


<석굴암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

경주 남산의 불교 유적

경주 남산(사적)은 신라 불교의 성지로 많은 절터들이 골짜기마다 남아 있다. 각 절터에는 다양한 양식의 불상과 석탑 등 많은 유물들이 남아 있다. 신라 마지막 박씨 왕들의 무덤인 배리삼릉에서 금오산 정상 아래 바둑바위까지 이어지는 삼릉계곡은 많은 골짜기들 중에서도 불교 유적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불교 유적을 탐방하거나 남산 등산을 위해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코스가 삼릉계곡일 것이다.

삼릉계곡에는 입구의 제1사지부터 바둑바위 아래 제9사지까지 여러 절터가 남아 있으며, 계곡입구의 망월사와 삼불사, 정상부 아래 작은 암자인 상선암이 신도와 탐방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삼릉 계곡 입구 삼불사에 있는 석조여래삼존입상(보물 63호), 제6사지 석조여래좌상(보물666호), 제2사지 석조여래좌상,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제6사지 석조약사여래좌상 등 석조불상들과 마애관음보살상, 선각육존불 등 다양한 형식의 마애불상, 경주 박물관으로 옮겨진 삼층석탑 등 다양한 석조유물들이 남아 있다. 또한 계곡 입구의 배리 삼릉은 울창한 소나무 숲에 자리잡고 있는데 경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경주 남산(사적) 탐방로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삼릉계곡 입구>

망월사 뒷편 삼불사에는 일제강점기에 여러곳에 흩어져 있던 것을 한곳으로 옮겨 놓은 석조여래삼존입상을 볼 수 있다. 조각수법이나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삼존불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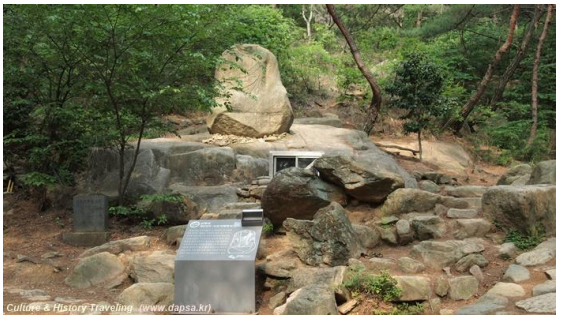

<망월사><삼불사 경내에 남아 있는 석조여래삼존입상(보물)>

삼릉계곡은 3기의 왕릉이 있는 배동 삼릉이 있는 곳이다. 삼릉 앞쪽에는 신라 8대 아달라왕, 가운데에 53대 신덕왕, 뒤쪽에 54대 경명왕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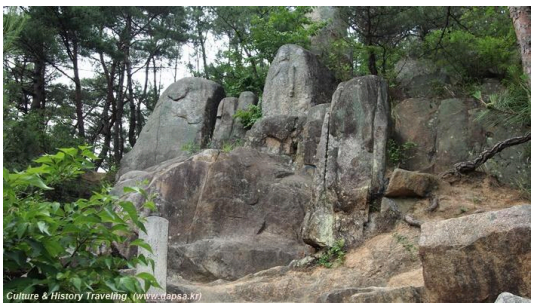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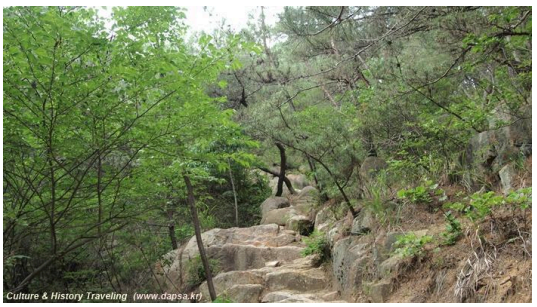

<배동 삼릉><삼릉계곡 탐방로 입구>

계곡을 들어서면 첫번째로 볼 수 있는 불교 유물들. 삼릉계곡 제1사지에 있던 탑재와 불상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있다. 탐방로는 계곡을 따라서 이어지고 있다. 입구의 제1사지부터 바둑바위 부근 제9사지까지 계곡 주변에 많은 절터들이 산재해 있다. 제2사지에는 몸통만 남아 있는 석조여래좌상이 남아 있다. 부근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을 현재의 위치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삼릉계곡 제1사지 탑재와 불상><삼릉계곡 제2사지>





<절터 뒷편에 언덕에 남아 있는 마애관음보살상><제2사지를 지나 오르는 등산로>

계곡 한쪽편에는 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비교적 넓은 공터와 바위에 선으로 새긴 선각육존불을 볼 수 있다. 오른쪽은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한 석가삼존불로 가운데 연꽃대좌에 석가여래가 앉아 있고 양쪽에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표현하고 있다. 왼쪽은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한 삼존불상으로 가운데에는 아미타여래가 연꽃대좌 위에 서 있고 양쪽에 대세지보살과 관음보살이 꽃쟁반을 받쳐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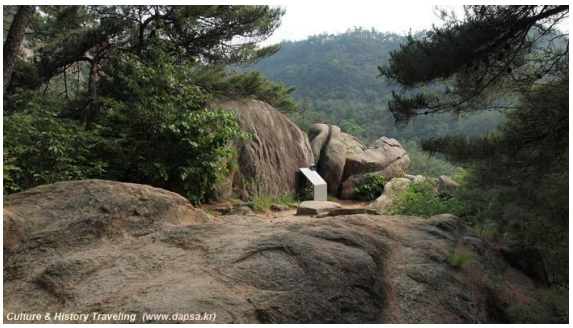


<선각육존불이 있는 절터>

제6사지에는 석조여래좌상(보물)를 비롯하여 마애선각여래좌상 등이 남아 있다. 이곳에 있던 석조약사여래좌상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석탑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져 있다. 비교적 큰 규모의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 6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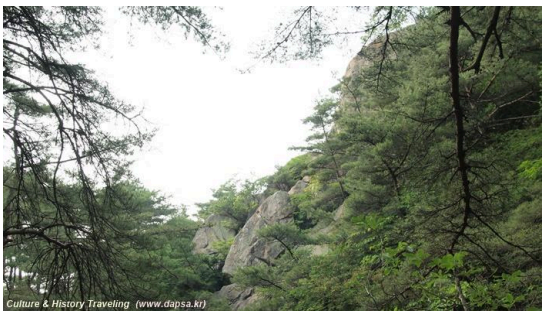
<제 6사지 삼층석탑이 있던 자리><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진 삼층석탑>

절터에서 내려와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탐방로에 마애선각여래좌상과 석조약사여래좌상이 있던 자리를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이 있다. 절터 뒷편 바위 틈에 석조약사여래좌상이 있었다고 한다. 부근에서 기와 등이 발견되어 원래 불전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애선각여래좌상이 새겨진 바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중인 석조약사여래좌상><석조약사여래가 있던 자리>

상선암은 삼릉계곡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계곡 상류 바위절벽 아래에 약간의 터를 잡고 불상을 모신 불전과 작은 요사건물을 세웠다. 남산에 남아 있는 많은 절터의 옛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상선암 경내에는 제9사지에 있던 선각보살상이 옮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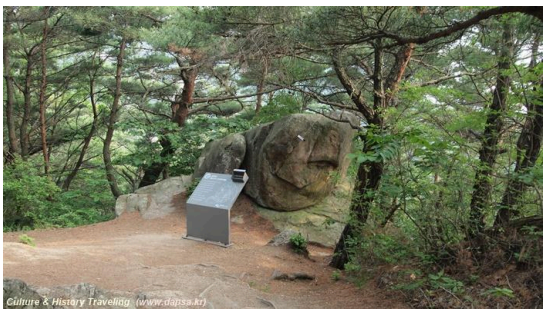


<삼릉계곡에 위치한 상선암><제9사지 선각보살상>





상선암을 지나면 삼릉계곡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제9사지가 있다. 이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주변 경치가 아름답다.





<삼릉계곡 제9사지><절터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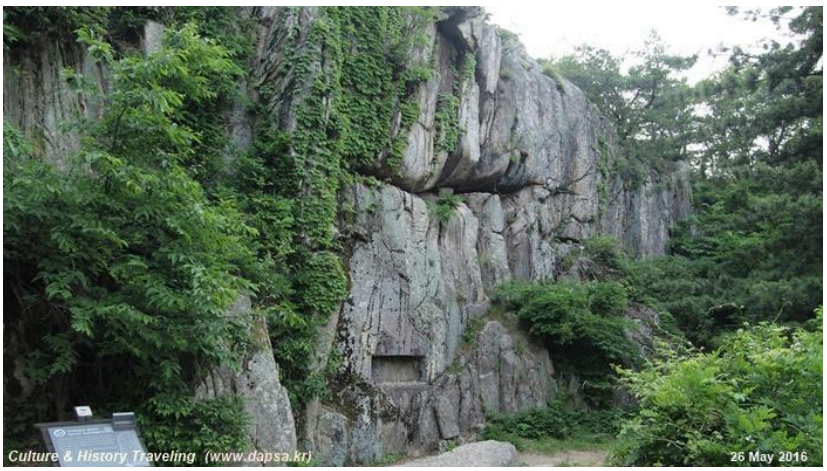
남산에는 서북쪽에 위치한 포석정에서 출발하여 동쪽 서출지 부근으로 연결되는 일주도로가 있으며, 능선을 따라서 많은 계곡들과 연결되는 등산로가 있다. 남산일주도로 주변으로 해목령, 이영재와 같은 고갯길과 전망이 좋은 곳에 자리한 바둑바위, 상사바위와 같은 명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남산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용장사지와 칠불암 또한 남산 능선에서 가까운 전망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제9사지에서 바둑바위 오르는 길><바둑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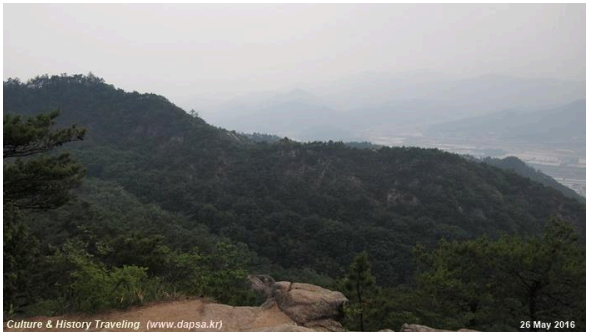
바둑바위는 경주 남산에서도 전망이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신선이 앉아서 바둑을 두며 놀았다는 전설이 있는 곳으로 남산 서쪽과 북쪽 도심이 한눈에 들어온다. 상사바위는 남산신이 살고 있다고 전설을 비롯하여 많은 이야기가 전해오는 남산의 대표적인 명소이다. 이곳에는 작은 석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작은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사바위>

상사바위에서 금오산 정상으로 연결되는 연결하는 능선길은 걷기에 좋은 곳이지만, 숲이 울창해서 주변 경치를 보기는 힘들다. 비파골 능선은 모양이 비파같이 생겼다고 하여 비파골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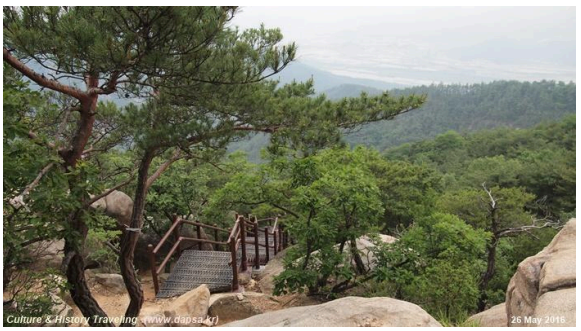


<삼릉계곡><비파골 능선>



<금오산 정상>





<정상부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일주도로><용장사 절터가 있는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

용장사 절터가 있는 용장계곡은 길이가 약 3 km 되는 남산에서 가장 크고 깊은 골짜기이다. 이곳은 금오신화의 저자 김시습이 머물렀던 곳으로 계곡에는 많은 절터와 석탑, 불상 등이 남아 있다. 김시습이 머물렀던 용장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절터들은 대부분 그 내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용장사지 삼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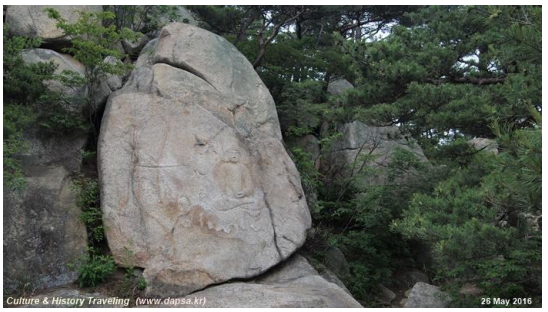




<불전이 있던 자리><절터에서 내려다 보이는 용장계곡>

남산의 많은 절터 가운데에서도 역사적인 내력이 있으며, 문화재도 많이 남아있으며, 경치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미륵장육상으로 여겨지는 석조여래좌상(보물 187호)이 있는 이곳이 불전이 있는 중심영역으로 보인다.





<석조여래좌상><마애여래좌상>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중턱에 있는 절터>

경주 남산 동쪽 남산동 절터에는 형식이 다른 2개의 탑이 세워져 있는데 불국사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형식이다. 통일신라 전성기가 끝나가는 9세경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동탑은 모전석탑 형식이 남아 있는 특이한 형태이며, 서탑은 정형화된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곳에는 비교적 큰 규모가 있는 사찰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그 내력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남산사 또는 양피사 등이 부근에 있었다는 후대의 기록이 있다고 한다. 절터 부근에는 오래된 저수지인 서출지와 통일신라 쇠퇴기 왕릉인 헌강왕릉과 정강왕릉이 있다.



<경주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

남간사지(**南澗寺址**)는 박혁거세 탄생신화가 있는 경주 나정에서 남산 해목령으로 들어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다. 남간사의 창건이나 내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거의 없으나 신라 애장왕때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부근에 삼층석탑이 남아 있는 창림사지와 일성왕릉이 있다.



<남간사지 절터와 당간지주>